

시민희망지수

2018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시민희망지수
컨퍼런스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희망지수 컨퍼런스 자료집

프로그램



13:30~14:00	등록		
14:00~14:40	2018 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 발표	손정혁	희망제작소 연구원
14:40~15:00	시민희망지수의 의미와 발전 방향	김홍중	서울대학교 교수
15:00~15:20	시민희망지수 지역 적용 사례 (안산시)	정주호	더좋은공동체 사무국장
15:20~15:50	종합토론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좌장) 조승현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김현대 한겨레21 선임기자 백희원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15:50~16:20	질의응답		

목차

I . 발표문	3
1. 2018 시민희망지수 조사 결과(희망제작소 손정혁)	3
2. 시민희망지수의 의미와 발전방향(서울대학교 김홍중)	36
3. 시민희망지수 적용사례: 안산시(더좋은공동체 정주호)	40
II . 토론문	49
1. 인천연구원 조승현	51
2. 한겨레21 김현대	53
3.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백희원	55
4. 노년유니온 고현종	59

1. 발표문



2018.
12.12. (수)
오후 2시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

더 나은 삶 과

2018 시민희망지식

더 나은 사회를 위한

- 01 조사 개요
- 02 개인적 특성 및 현재 만족도
- 03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 04 개인적 차원의 희망
- 05 사회적 차원의 희망
- 06 국가적 차원의 희망
- 07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 08 결론

CONTENTS

2018 시민희망지식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과정
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4. 조사 부문 및 항목
5. 조사 결과 요약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참여지식

01 배경 및 목적

» 조사 배경

-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시작
-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치하지 않음
- 세계적으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개발 및 적용하고 있음
- '미래'라는 시간적 관점을 가진 '희망'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음
- '희망'은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는 행동과 실천을 구성하는 실질적 힘을 가짐
- '희망'을 "나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으로 정의함

01 배경 및 목적

» 조사 목적

-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음
-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사회 희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시민희망지수'를 개발하였음
- 이를 통해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사회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통의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임

7

02 조사설계 과정



8

0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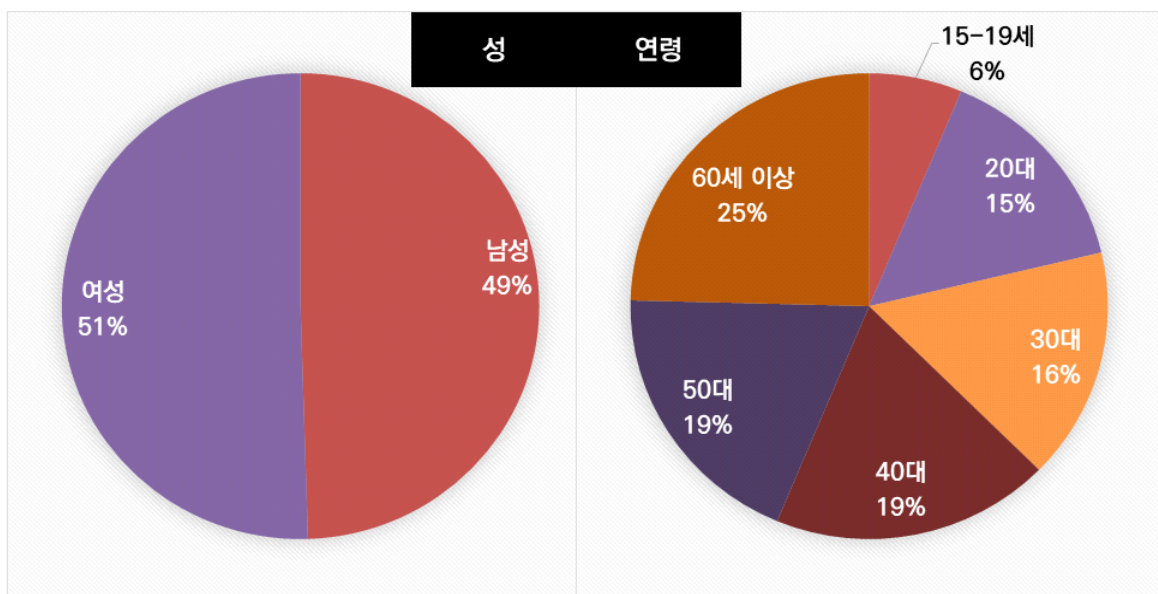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표본 수: 1,000명
- 표본추출: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조사기간: 2018년 11월 6일(화)~9일(금) / 총 4일간
- 조사기관: (주)원지코리아컨설팅

9

0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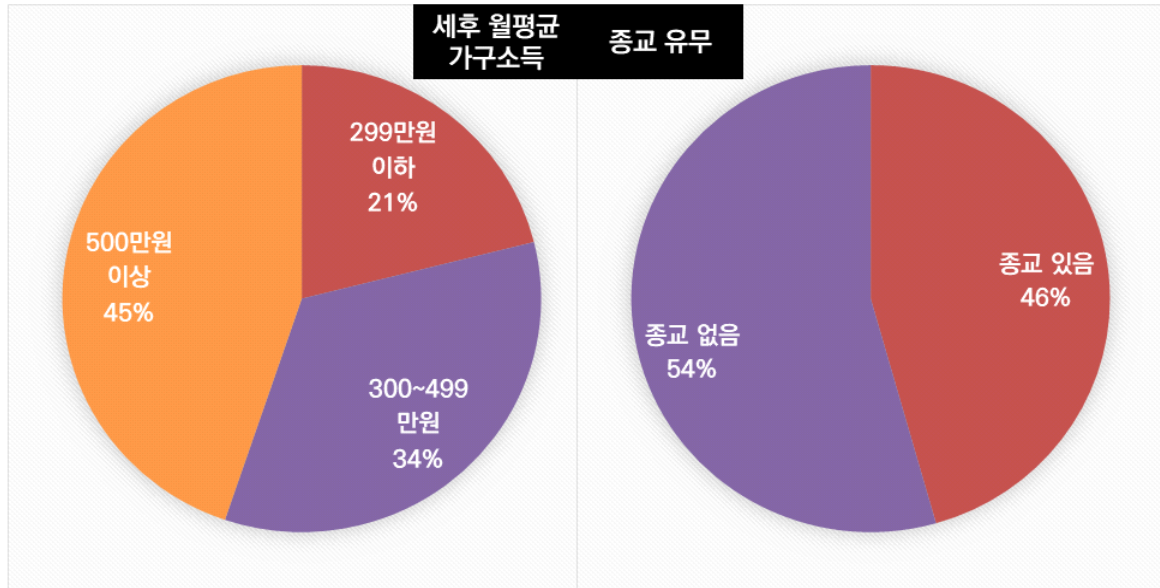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10

0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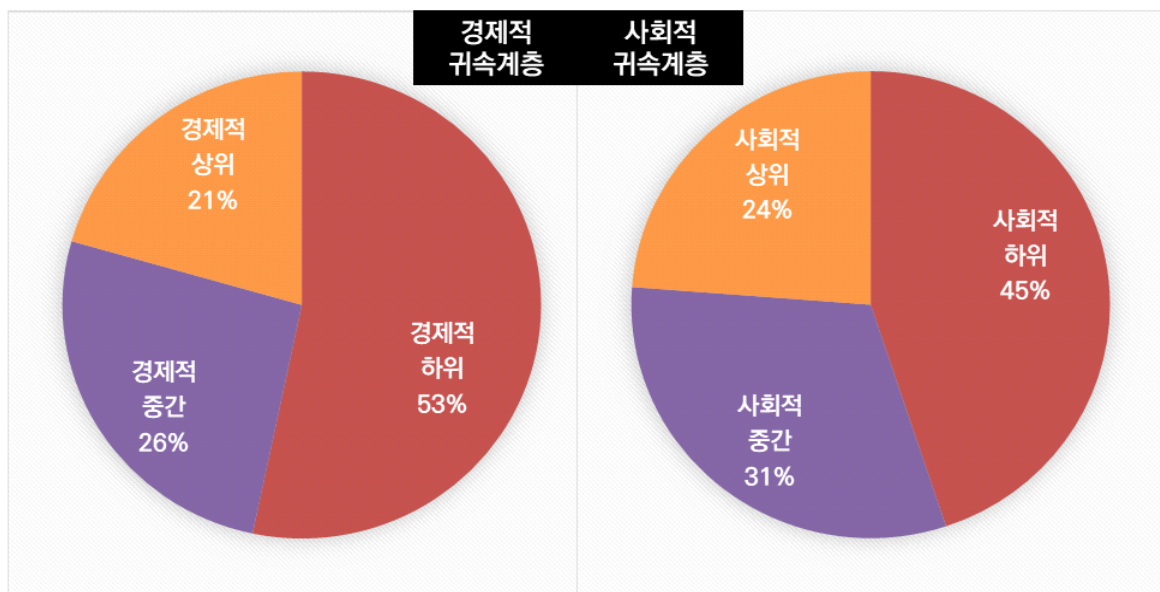
» 응답자 특성



11

03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 응답자 특성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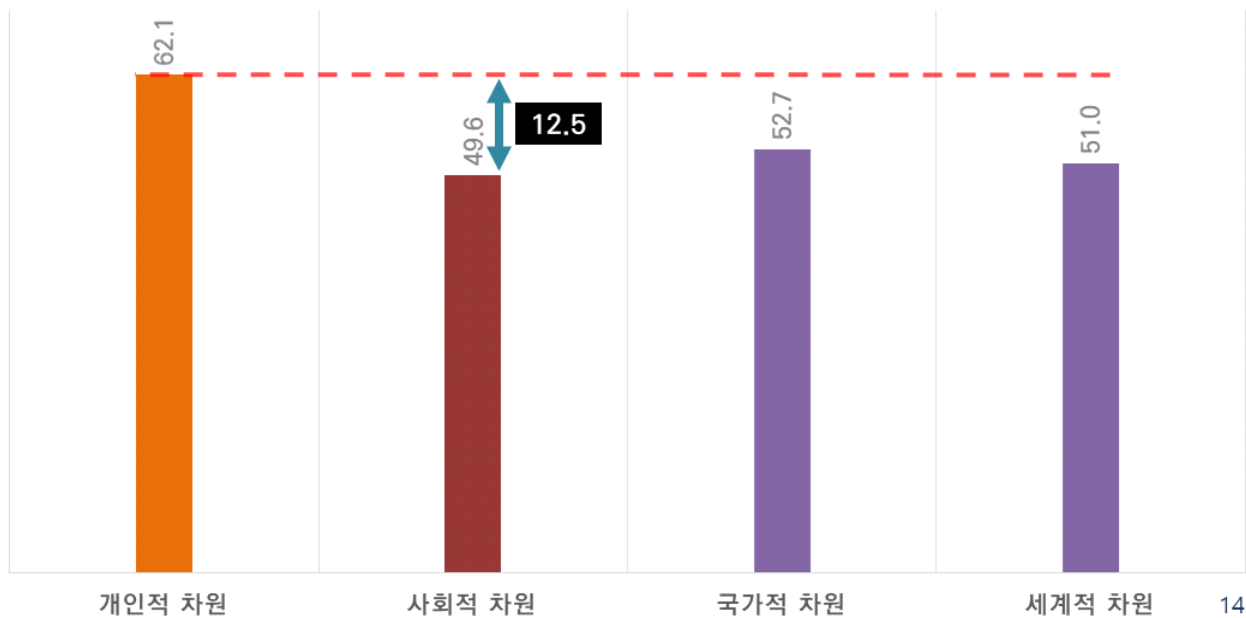
04 조사 부문 및 항목

2016	2017	2018	조사 항목
개인적 삶에 대한 희망 인식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현재 만족도 및 사회에 대한 평가, 사회적자본	현재 만족도(항목별),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참여활동 경험 및 의향, 사회에 대한 평가(항목별), 사회적자본
우리 사회에 대한 전반적 희망 인식	개인적 차원의 희망	개인적 차원의 희망	건강상태, 취업(고용) 또는 사업 기회, 배우자와 교류, 가족과 교류, 친구와 교류, 경제상태, 자율적 시간사용, 기술발달과 삶, 전반적인 희망
사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희망 인식	사회적 차원의 희망	사회적 차원의 희망	재난재해로부터 안전, 사회적 갈등 감소, 일과 여가시간의 균형, 자연환경문제 개선, 사회의 투명성, 불평등 문제 개선(항목별), 자신의 성으로서 삶, 전반적인 희망
인구사회적 특성	국가적 차원의 희망	국가적 차원의 희망	정부에 대한 신뢰, 남북관계 평화와 협력, 경제 활력, 소프트파워 증대, 국제사회 역할 중요, 전반적인 희망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기술발달과 삶, 전쟁 및 난민 문제, 테러 위협 완화, 국가 간의 협력 흐름 증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 자연환경문제 개선, 전반적인 희망
	인구사회적 특성	인구사회적 특성	성, 출생년도, 거주지(광역시, 읍면동), 교육정도, 이념성향, 직업, 가구소득, 주택보유, 혼인상태, 가구원수, 자녀유무 및 자녀수, 종교유무, 종교활동 참여도, 경제적 귀속계층, 사회적 귀속계층

13

05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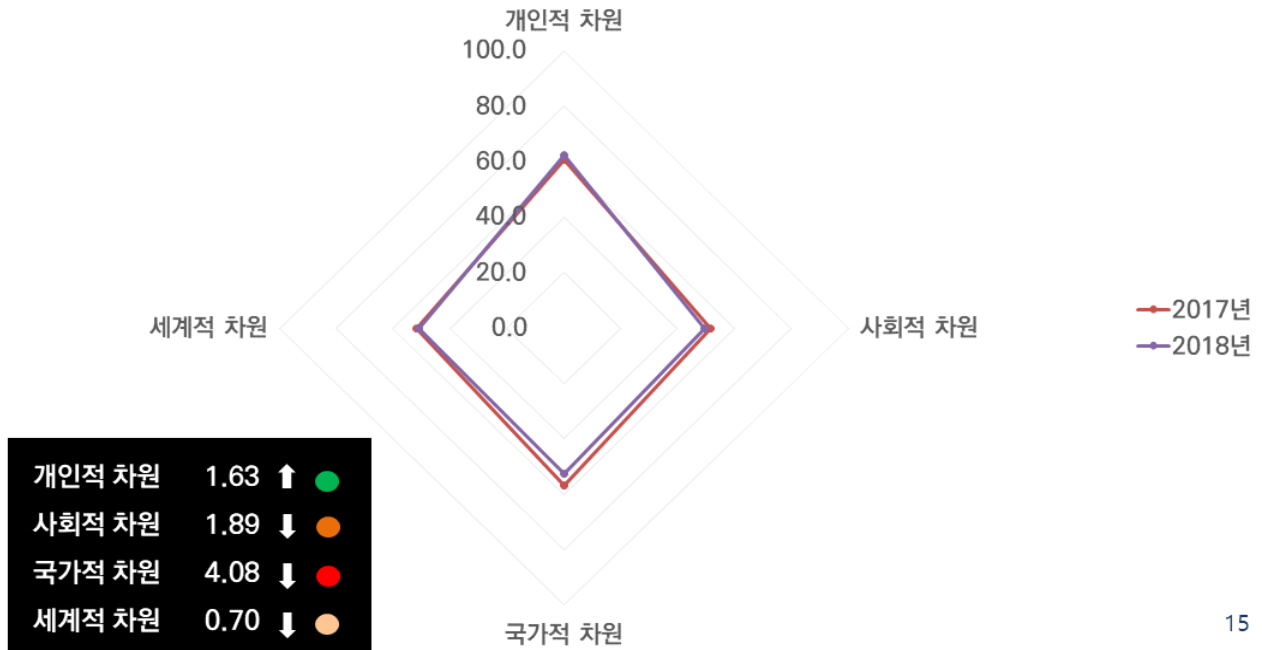
» 2018 시민희망지수 종합(차원별 희망점수)



14

05 조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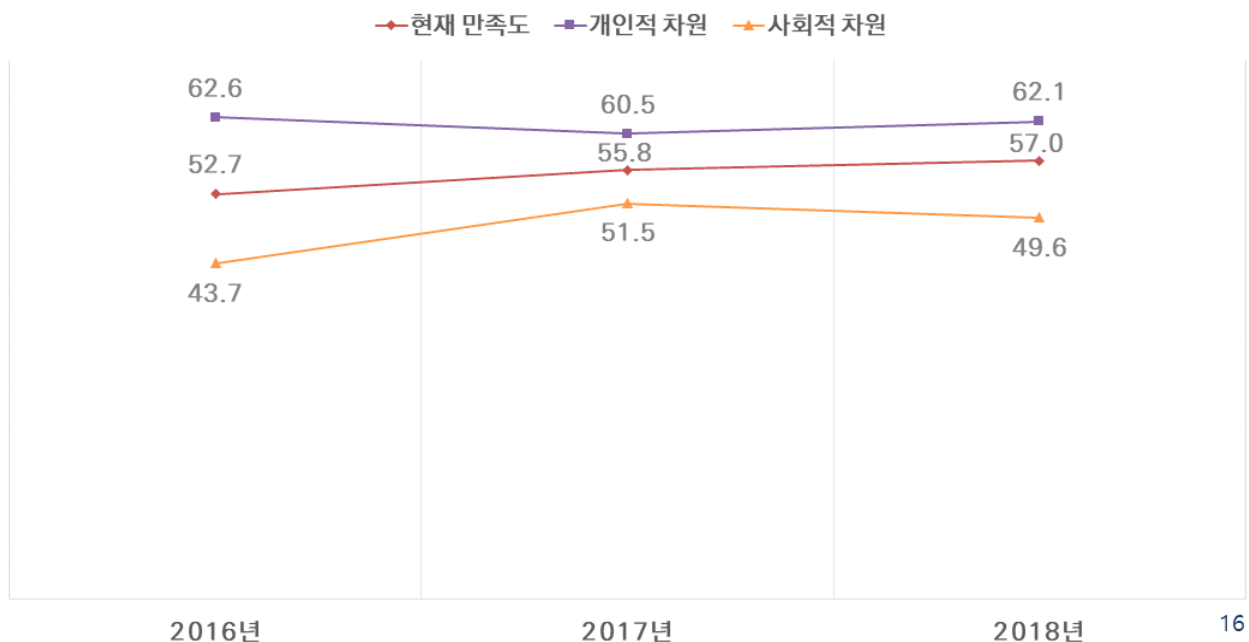
» 차원별 희망점수 비교



15

05 조사결과 요약

» 만족도 및 희망점수의 변화 추이



16

개인적 특성 및 현재 만족도

1.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2. 사회참여활동
3. 사회적 자본
4. 시민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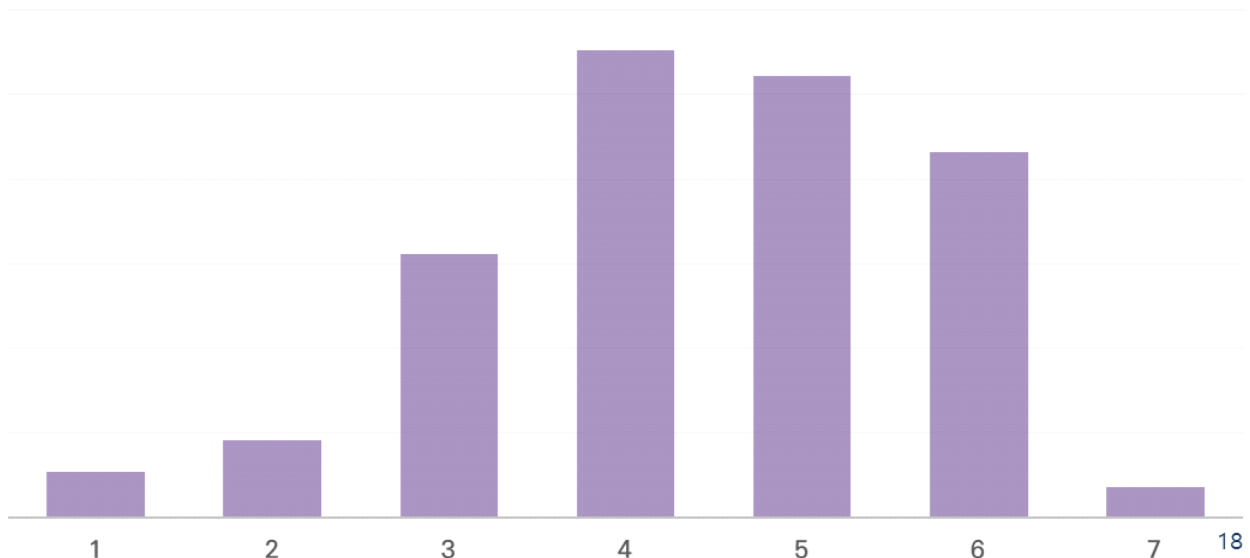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참여지표

01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2017년 대비 모든 항목과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

■ 전반적인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1.2점 상승한 57.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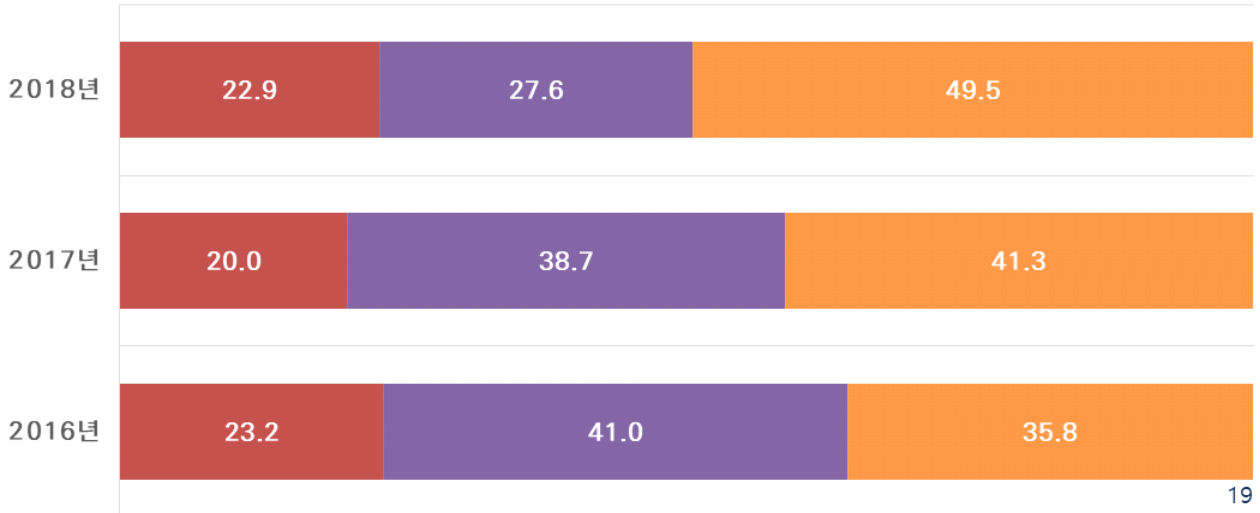


01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2017년 대비 모든 항목과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

■ 긍정에 응답한 비율은 8.2%p 상승, 지속적으로 상승 중

■ 불만족 ■ 보통 ■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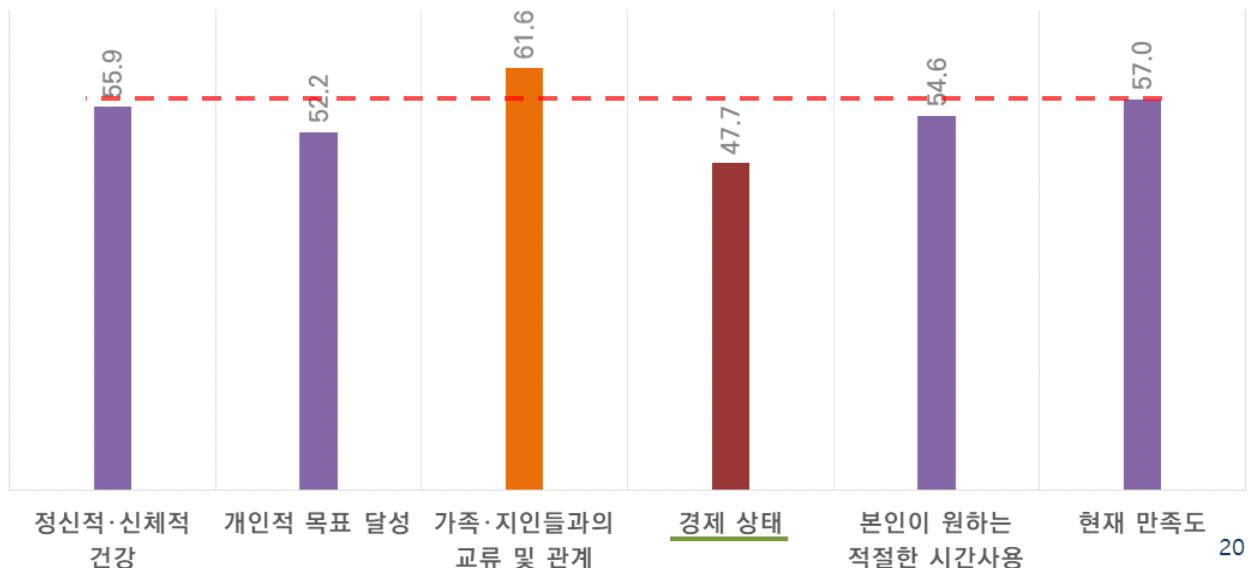


19

01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2017년 대비 모든 항목과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

■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0점) 이하, 주변과 교류 및 관계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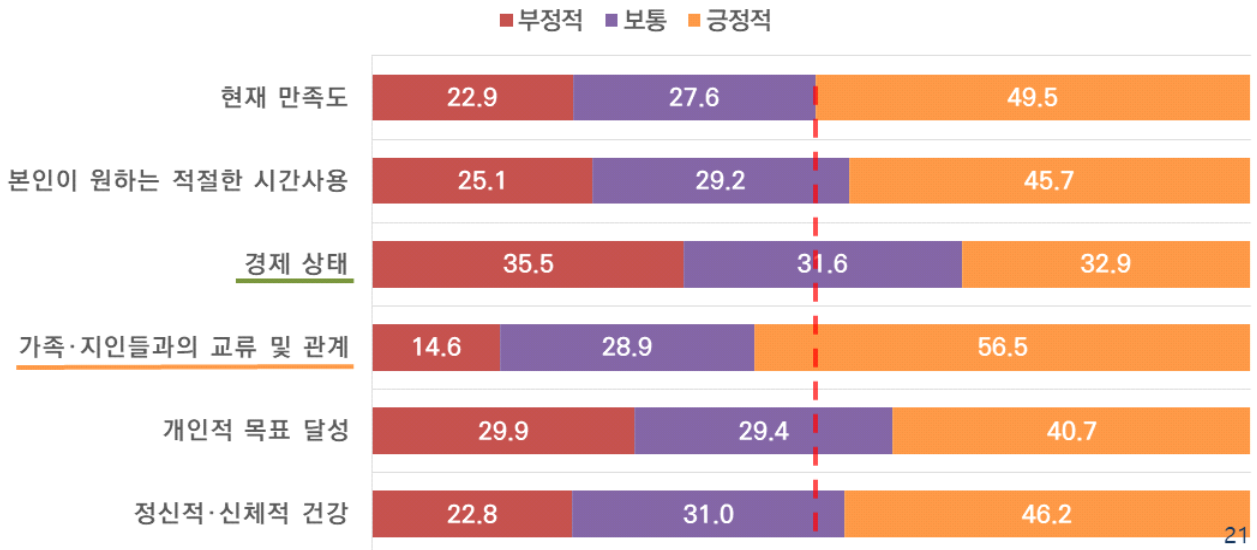


20

01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 2017년 대비 모든 항목과 전반적인 만족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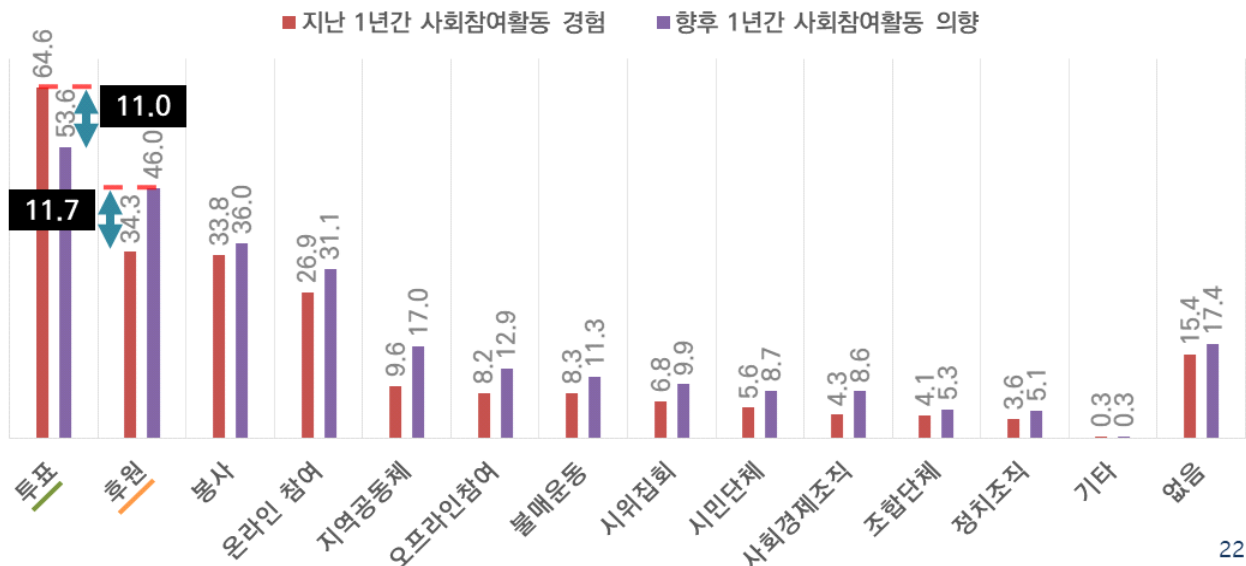
■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주변과 교류 및 관계



02 사회참여활동

» 사회참여활동 중 투표 의향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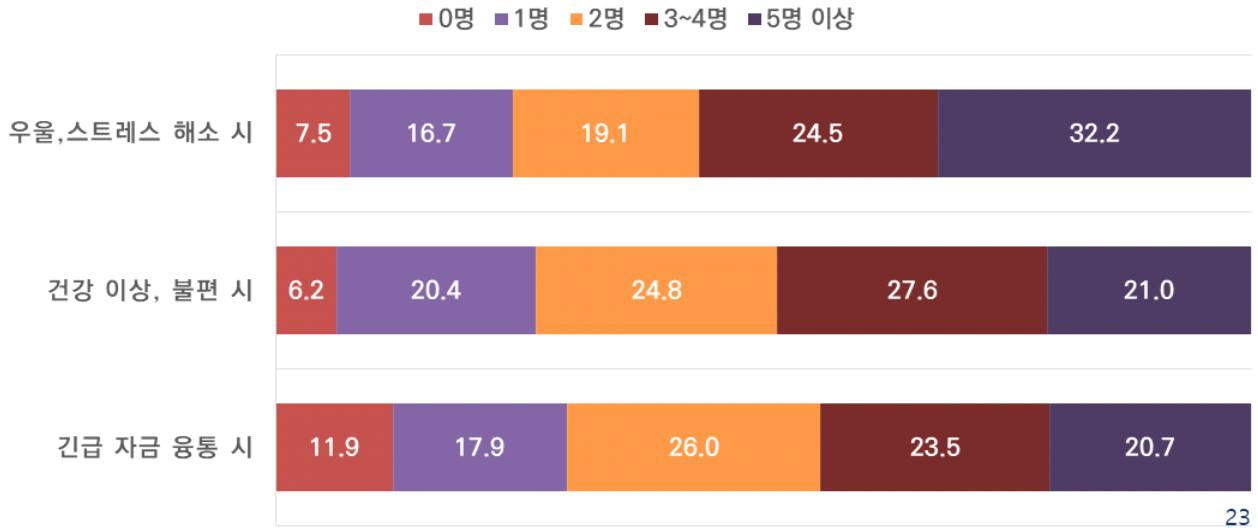
■ 투표 의향이 경험 대비 11.0%P 감소, 후원은 11.7%P 증가



03 사회적 자본

»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는 비율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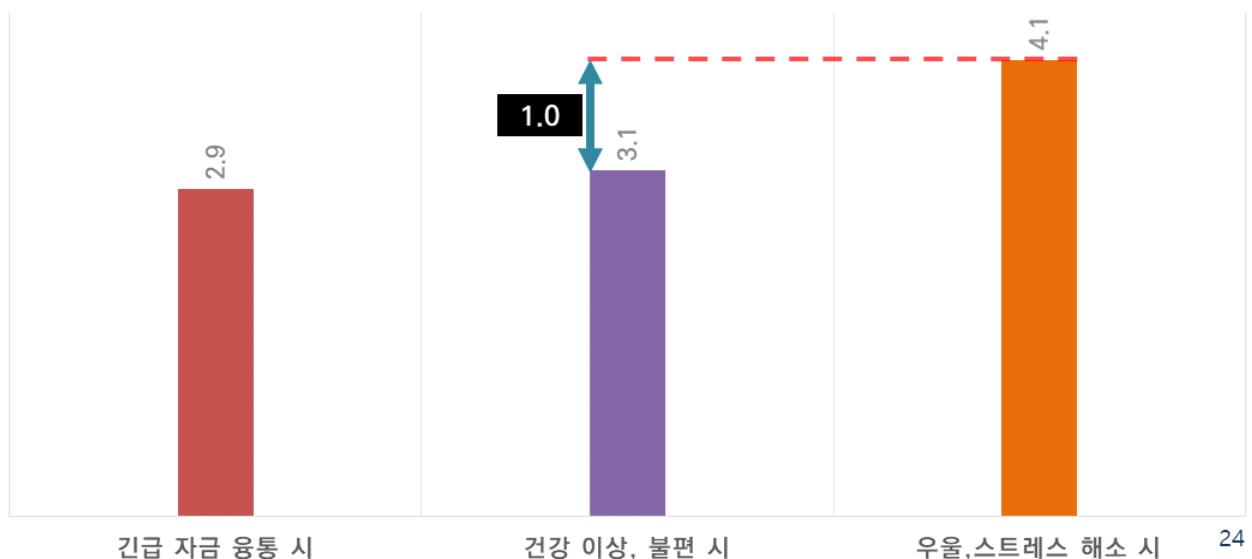
■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는 경우 7.5%



03 사회적 자본

»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대화상대는 평균 약 4명

■ 긴급 자금이 필요하거나, 건강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줄 지인은 평균 약 3명



04 시민의 목소리

현재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여러 가지로 지친 편임. 모든 것들이 해치워야 할 일로 다가왔음. 불안함이 사람을 지치게 함. (20대, 학생, 남성) 퇴사하면서 다른 일을 시작하기 늦은 나이가기 때문에 불안했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함. 그 시기를 되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음. (30대, 직장인, 여성) 점점 우리 사회가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경향이 있음. 그 때문에 이직 및 이민에 대해 고민도 했음. (40대, 직장인, 남성)
------------------------------	--

25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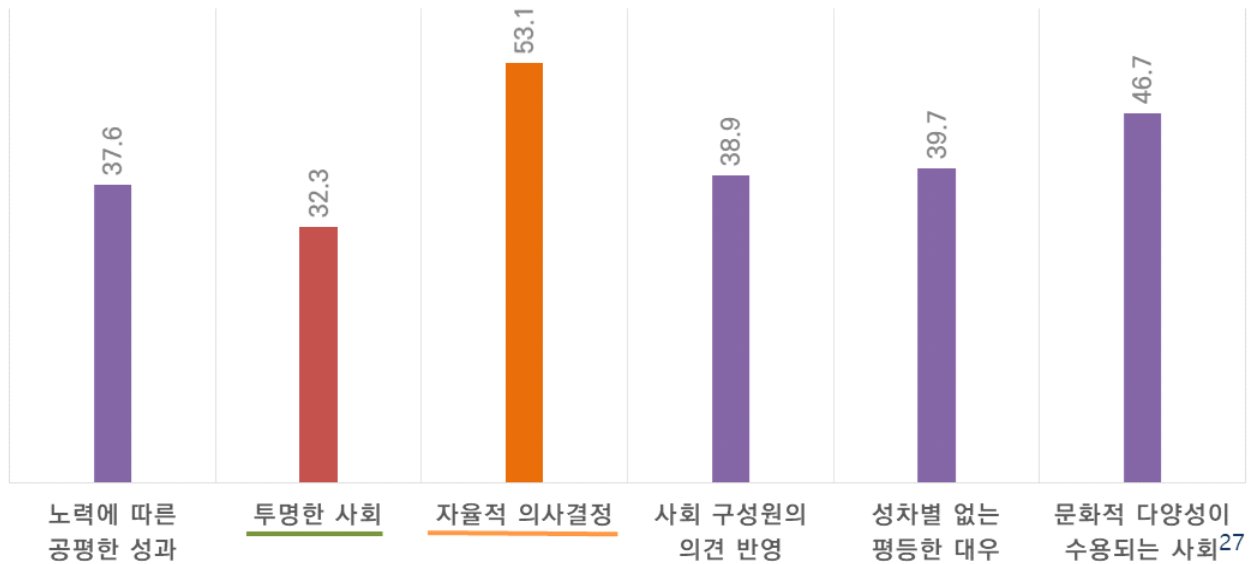
1.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3. 시민의 목소리

03

01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 투명한 사회는 32.3점,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는 37.6점

■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



01 현재 사회에 대한 인식

➤ 투명사회에 대해 부정적 응답 67.0%

■ 공평한 성과, 성차별, 구성원의 의견 반영은 모두 부정적 응답 비율이 50.0% 이상

■ 부정적 ■ 보통 ■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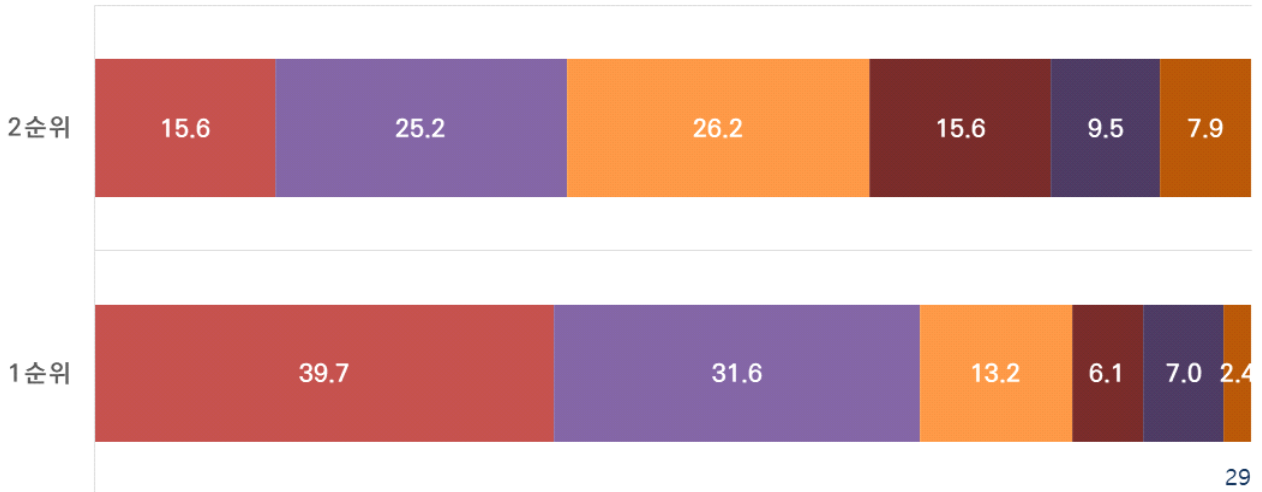


02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순위로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이 39.7%

■ 순위점수에서도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 그 다음으로 개인의 노력, 타고난 재능

■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 ■ 개인의 노력 ■ 타고난 재능 ■ 사회제도(정책) ■ 신체적 조건 ■ 우연(행운적 요소)



29

03 시민의 목소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투명성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음. 인맥이 중요하고, 비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이 사회를 움직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30대, 직장인, 여성)
본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가 원하는 삶을 꾸릴 수 있는 정보나 물질 자원, 인적 자원과 같은 것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본인도 청년이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물질, 경제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더해 인적 자원도 굉장히 부족함. (30대, 무직-안식년, 여성)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도 중요함. 부모의 경제력이 성장에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부딪치면 많은 제약을 겪게 됨. (40대, 직장인, 남성) 여건과 여유가 중요함.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데 중요한 요소임. 또한 경제적 요소도 중요함. 경제적 요소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며, 요즘에는 스스로 관계를 탈락시키거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사람도 있음. (20대, 학생, 남성)

30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개인적 차원의 희망
2. 개인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3. 시민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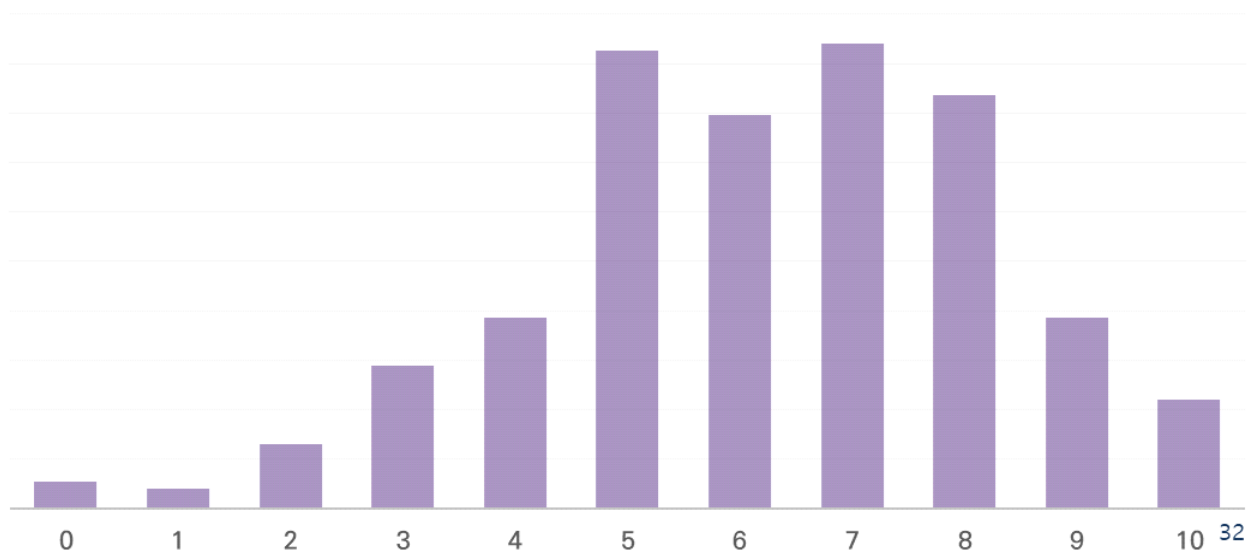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8 시민참여지수

01 개인적 차원의 희망

» 다른 차원보다 가장 높은 62.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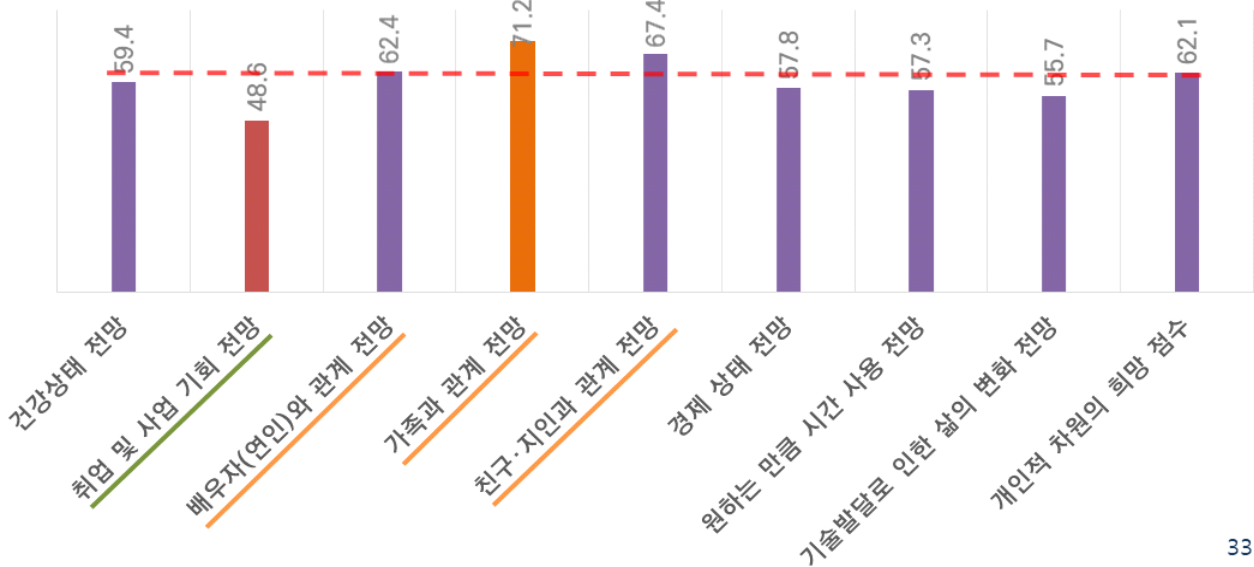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과 관련



02 개인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른 영역의 낮은 점수 보완

■ 취업 및 사업기회 전망은 부정적, 가족과 관계 전망은 긍정적



33

02 개인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대부분 긍정적 전망 비율이 높음

■ 취업 및 사업 기회만 긍정적 비율보다 부정적 비율이 높음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34

03 시민의 목소리

본인의 미래에 대한 희망	희망적임. 인생 2막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희망적임. 물질적 풍요는 아니지만, 개방적인 삶을 살게 되어 희망적임. (50대, 직업상담사, 남성) 본인의 미래가 유쾌할 것 같지 않음.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 결혼이나 취업 등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임. 또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졌고, 앞으로 그 변화의 속도를 못 따라갈 것 같음. (20대, 학생, 남성) 희망적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음. 그러나 돈이나 개인 시간을 갖는 대신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며,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임. 나의 시간과 나의 가능성을 좀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야 희망이 생김. (40대, 직장인 남성) 경제, 취업 등은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지만, 관계망을 꾸려 나갈만 한 자원이 없음. 일상은 괜찮지만, 꿈을 실현하는 것은 어려움. (30대, 무직-안식년, 여성) 현재 하는 일과 관련된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해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음. 이로 인해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며, 5년 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따라가기 어려울 것 같음. (30대, 직장인, 여성)
---------------	--

35

03 시민의 목소리

취업(고용) 또는 사업의 기회에 대한 전망	나만의 기술을 쌓지 않으면 낙오될 것 같음. ... 사업에 관해서도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실행이 어려울 것 같음. (30대, 직장인, 여성)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함. 국가가 이 부분을 보전(지원)해 줘야함. ... 도전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만, 국가가 지원해주기를 원함. (20대, 학생, 남성)
자신의 시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망	개인의 의지가 중요함. 많이 포기하면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음. 5년 후에는 지금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있을 것 같음.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많은 일을 기계들이 하고 여유로워질 것으로 전망함. (20대, 학생, 남성) 우선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시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하는데,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음. 건강, 나이, 부모 부양 등은 지속해서 노동하게 만드는 요인임. (30대, 직장인, 여성)

36

03 시민의 목소리

개인이 더 희망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	변화는 지금도 하고 있음. 더 큰 변화라고 하면, 시니어 세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에 진입할 수 있는 학습과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함. (50대, 직업상담사, 남성)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함. 대한민국에서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을 쓰도록 교육받고 있음. 너무 지나치게 갈등이 많고, 혐오도 많음. 편화된 개인이 많고, 공동체가 없기 때문일 것. (20대, 학생, 남성) 좋은 사람과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 왔으며,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음. 다만 포기과 불안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함. (40대, 직장인, 남성) 아근을 계속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한국 사회 전체 수준에서 일을 좀 멈춰야 하지 않나고 생각함. 주변을 돌아봐도 너무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음. 여백이 없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가 나올 수 없음. 모든 것을 대충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음. (30대, 무직-안식년, 여성)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고차원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생존을 위한 노동 이외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함. 또한 A안이 실패하면, B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열린(보장 또는 지원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함. (30대, 직장인, 여성)
--------------------------------	--

37

사회적 차원의 희망

1. 사회적 차원의 희망
2. 사회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3.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4. 자신의 성으로서 삶의 희망
5. 시민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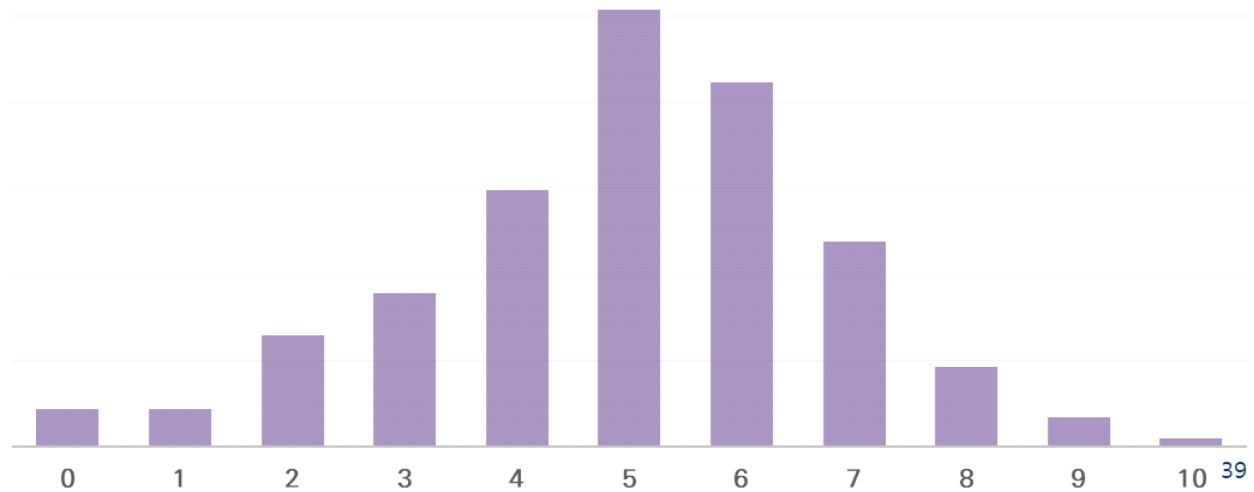
05

2018 시민참여조사

01 사회적 차원의 희망

» 사회적 차원의 희망은 49.6점으로 보통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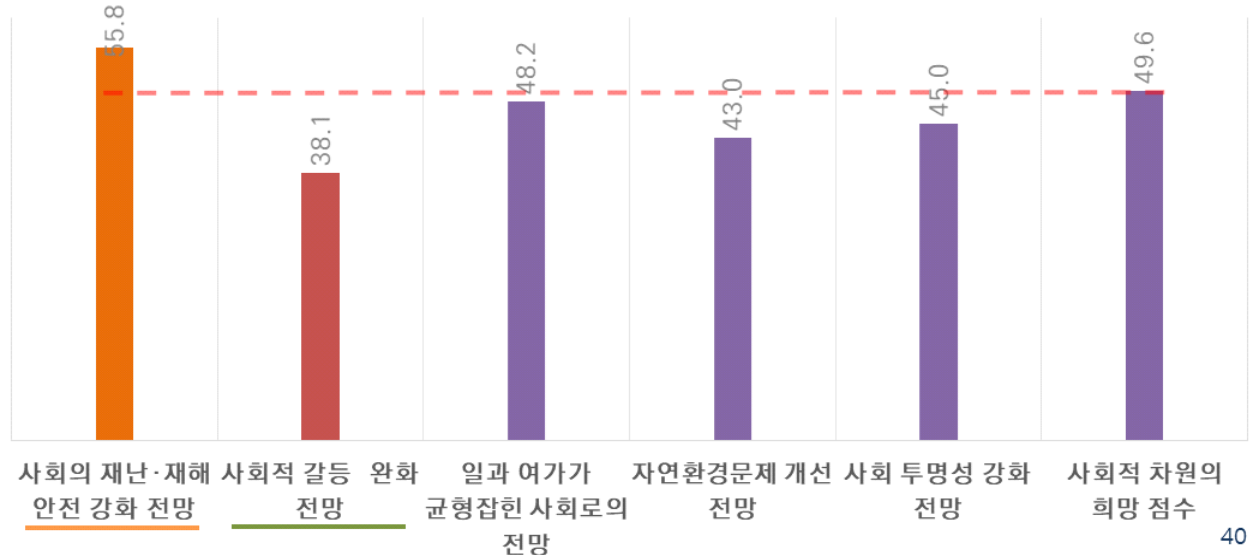
■ 전년 대비 1.9점 하락, 부정적 응답자 3.3%p 증가



02 사회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에 대한 개선 전망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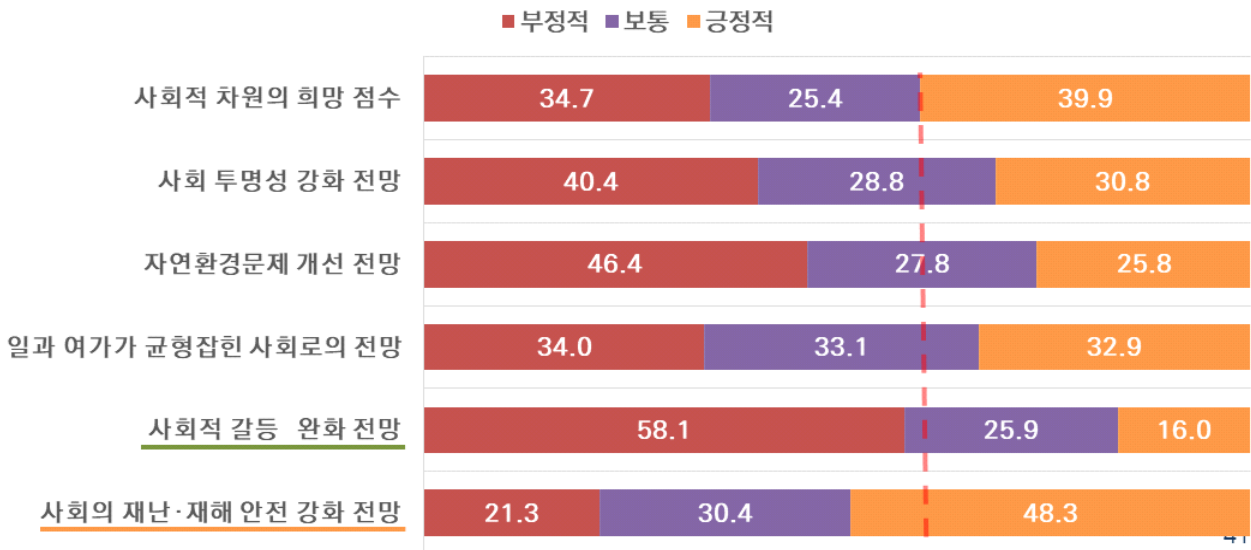
■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음



02 사회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사회적 갈등 완화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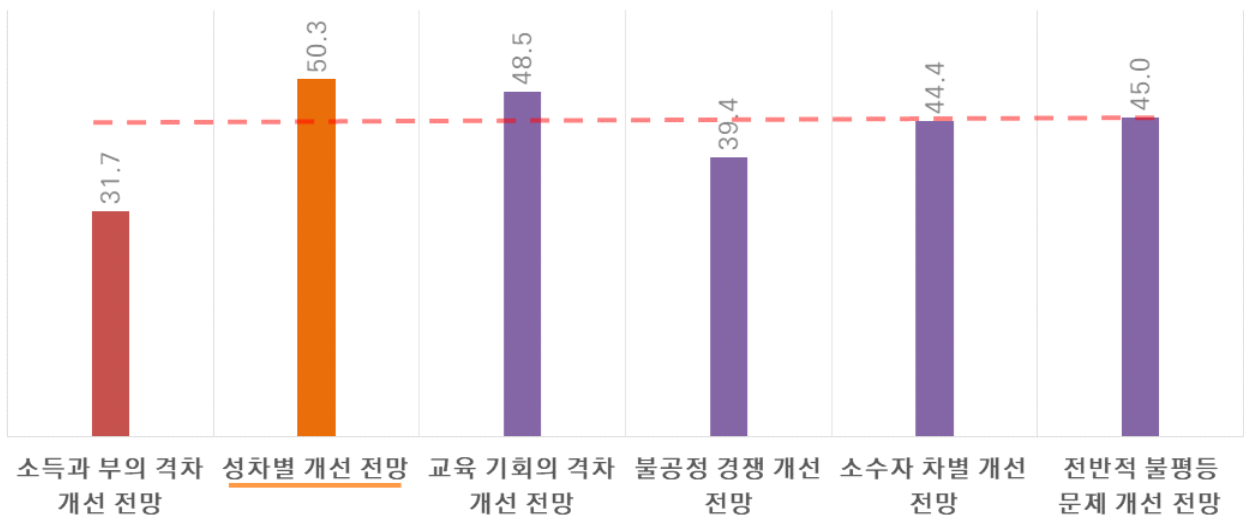
■ 사회의 재난, 재해 안전 강화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48.3%



03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 소득과 부의 격차, 불공정 경쟁(취업 및 사업 등) 개선 전망은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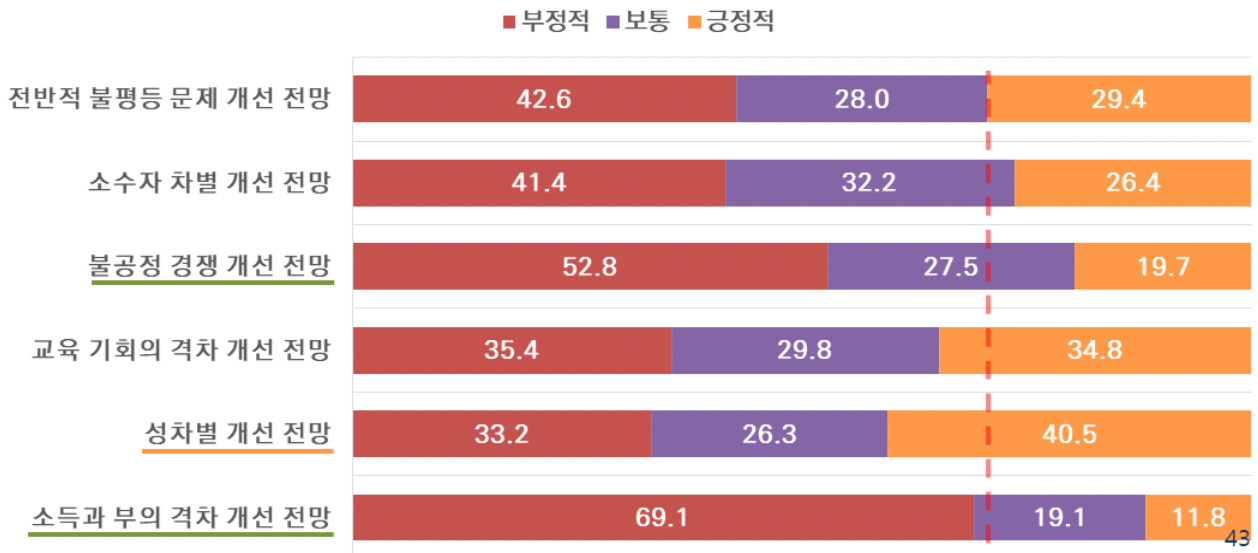
■ 성차별 개선 전망은 보통 수준, 다른 항목들은 부정적 전망



03 불평등 문제 개선 전망

» 소득과 부의 격차 개선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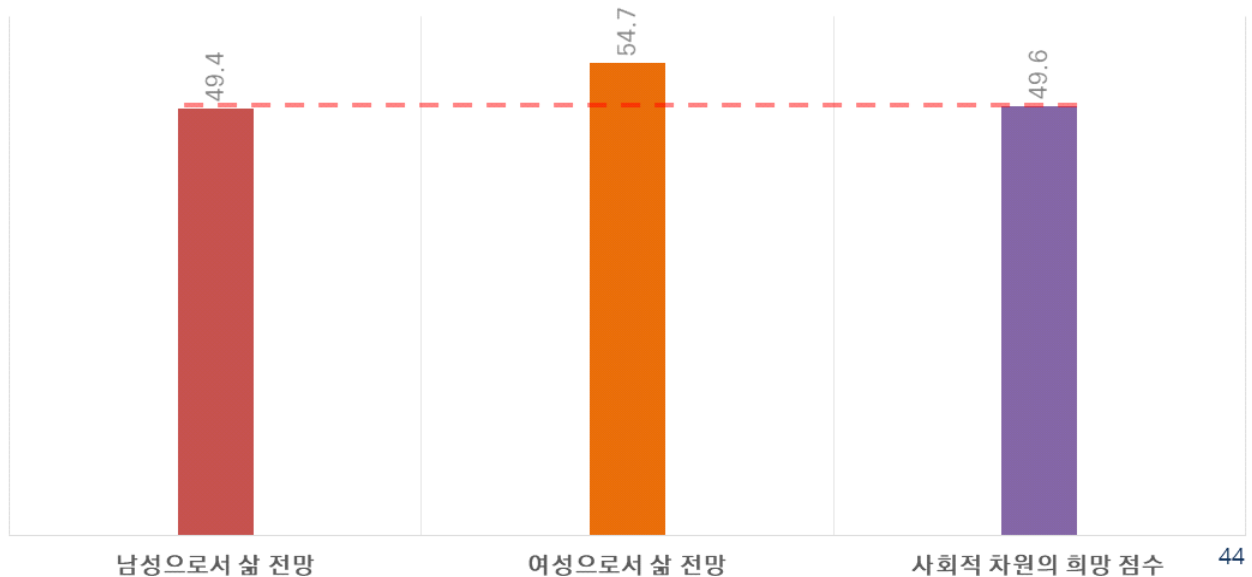
■ 불공정 경쟁 개선 전망도 부정적 응답이 52.8%



04 자신의 성으로서 삶의 희망

»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성으로서 삶에 대해 희망적

■ 자신의 성으로서 삶의 희망은 여성이 남성보다 5.3점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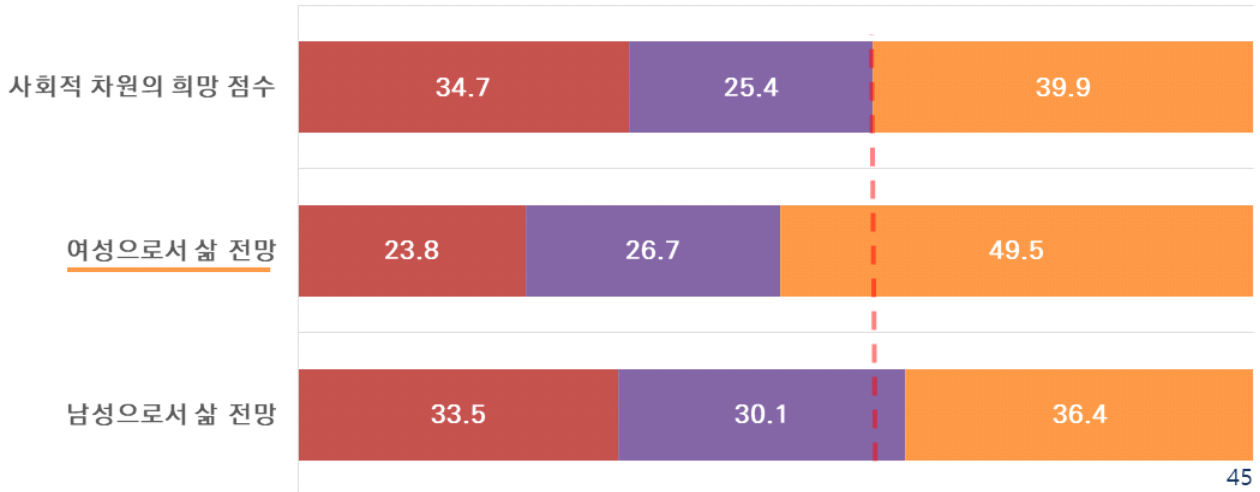


04 자신의 성으로서 삶의 희망

» 여성의 절반은 자신의 성으로서 삶에 대해 희망적

■ 남성의 33.5%는 자신의 성으로서 삶에 대해 부정적

■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05 시민의 목소리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

청소년과 청년들이 스트레스가 덜하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자살이 사망원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함. 이것은 대부분 세대에서 희망을 못 찾는 것을 나타냄. 취업, 시험, 입시와 같은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불안감임. 너무 (많은 정보가) 개방되어 있어서 한번 낙인찍히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임,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청년과 청소년들이 불안감이 없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 (40대, 직장인, 남)

10~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고, 40대 이상은 암임. 못 버티면 자살, 버티면 암이라는 말이 있음. 지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음. 덮여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발달과 같은 이유로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보았을 때, 미래는 절망적임. 앞으로 현재의 문제가 재현될 것. 앞으로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이 있음. (30대, 직장인, 여성)

05 시민의 목소리

우리 사회가 더 희망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	뉴스를 보면 부정적 내용이 만연함. 그러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 80~90년대는 전두환 천양과 같은 뉴스만이 많았으며, 문제들은 숨기고 감추었음.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드러낸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기존의 문제를 드러내고 바로잡는 일이 계속되어야 함.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났지만, 긍정을 향한 출발임.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다른 환경을 주어야 함. (40대, 직장인, 남성) 개인적으로는 희망적이지 않지만, 국가 단위, 사회 전체로 보면 희망적임.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 5년 후에도 취업준비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달라져 있을 것. 정치부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정치의식이나 사회변화를 정치부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정치부문의 변화속도가 느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20대, 학생, 남성)
-----------------------------------	---

47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국가적 차원의 희망
2. 국가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3. 시민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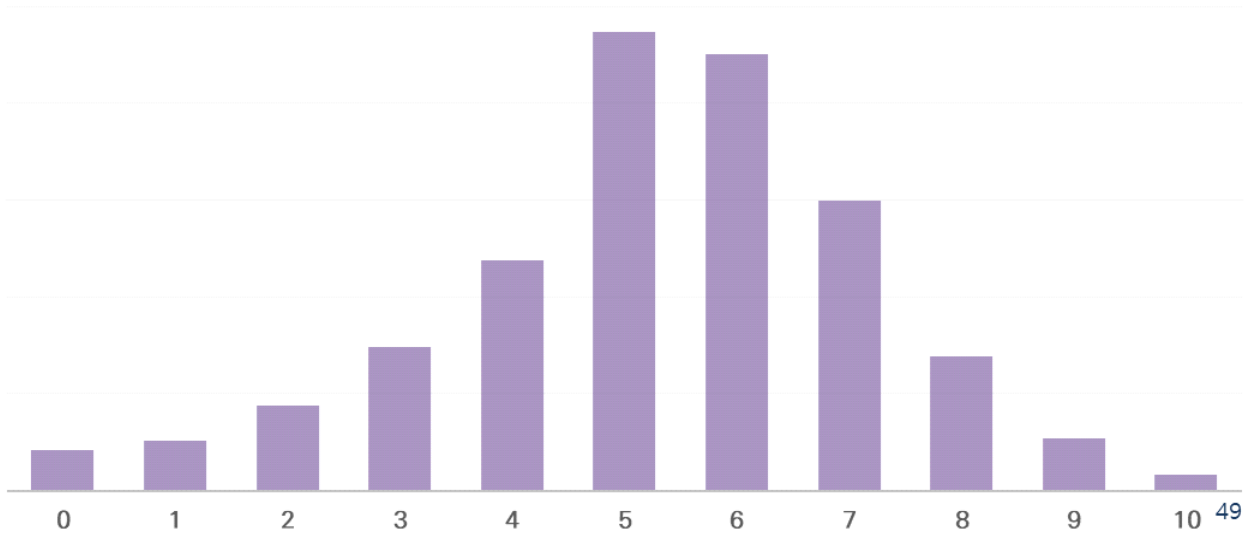
06

2018 시민참여조사

01 국가적 차원의 희망

» 전년 대비 4.1점 하락한 52.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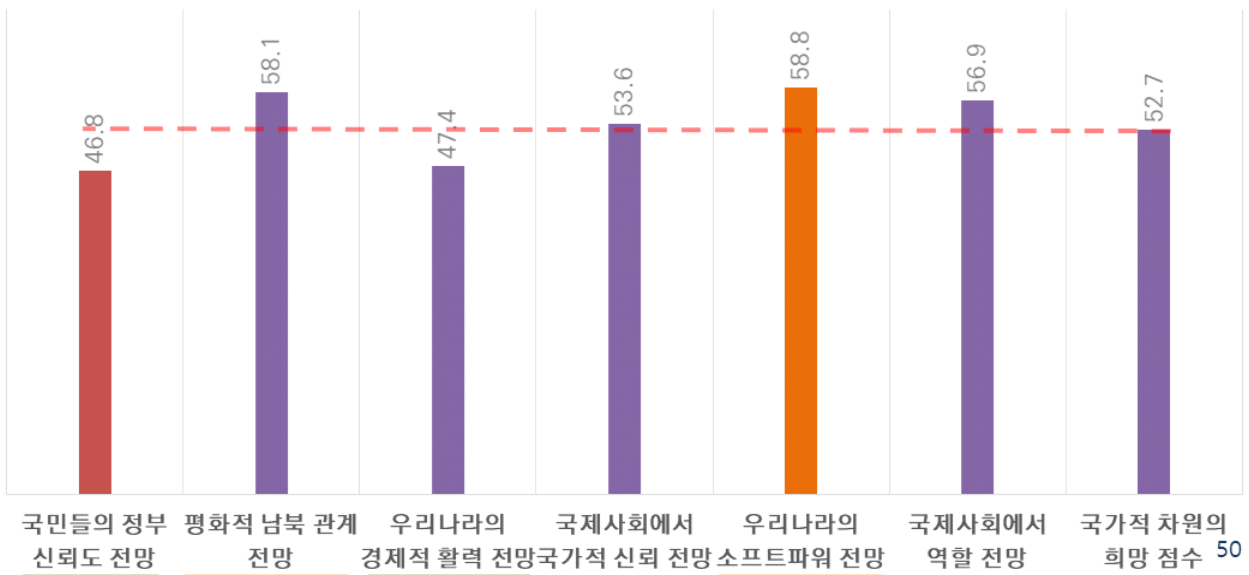
■ 응답자의 47.9%는 희망적, 개인적 차원의 희망점수(62.1점) 보다 9.4점 낮음



02 국가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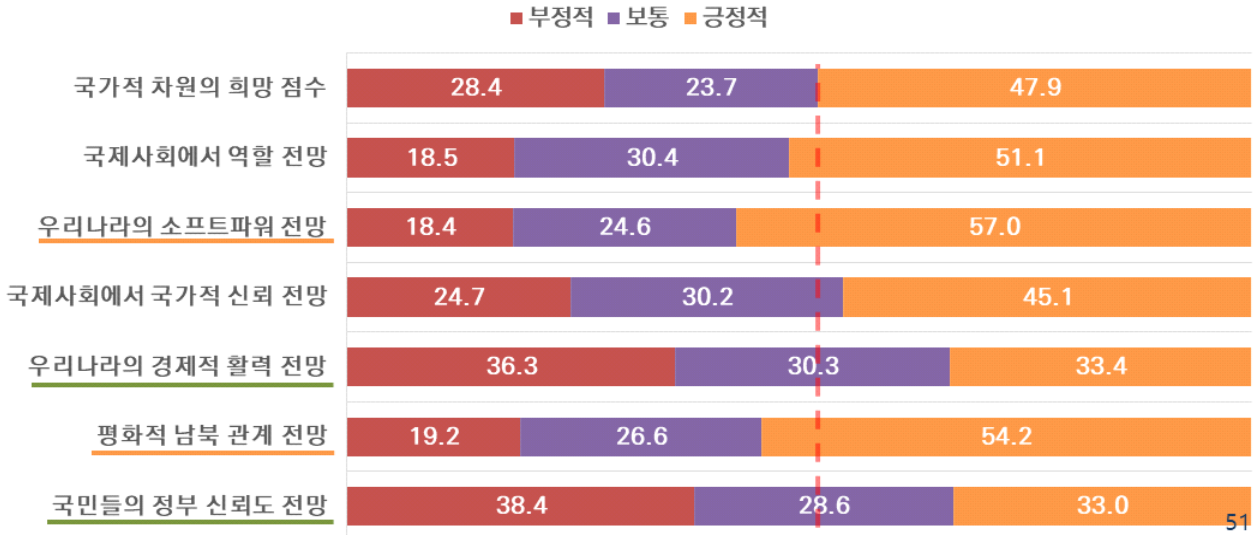
■ 평화적 남북관계 전망의 15.2점 상승에도 국가적 차원의 희망점수는 하락



02 국가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 응답 38.4%

■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57.0%로 가장 많음



03 시민의 목소리

	국가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나오고 있음.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와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는 부정적임. 그에 반해 남북관계는 희망적으로 생각함. 긴장 완화가 통일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 경제적으로도 남북관계 증진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40대, 직장인, 남성)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	국가가 통합되어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세대 간의 소통과 갈등이 문제임. 다른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았는데, 각 세대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았음. 소통할 수 있는 장이나 자원이 오고 갈 수 있는 장이 없음. 절망적임. (30대, 무직-안식년, 여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제도적 부분은 외형적으로 튼튼하고 남북관계도 나쁘지 않아 대외적인 국가의 모습은 긍정적임. 그러나 국가 내부의 삶은 희망적이지 않음. (20대, 학생, 남성)

03 시민의 목소리

우리나라가 더 희망적이 위해 필요한 변화	현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필요함. 단기간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문제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함. 현 정부 또는 국가의 정책을 믿고 지켜봐 주는 것이 필요함. 대외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영향을 숨기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 같음.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면서 같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40대, 직장인, 남성) 먹고, 마시고, 죽자 같이 죽도록 일하자는 분위기 있음. 중간지대가 없음. 사적, 공적 중간지대가 필요함. 너무 다급한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0대, 직장인, 여성) 국가적 차원에서는 잘하고 있음. 해외 여행을 나가보면 우리나라의 인프라, 의식 등이 비교적 나은 편임. 우리나라 내부에서 느끼는 것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함. (30대, 직장인, 여성) 자신감 있게 세계 속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대내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함. 대외적인 모습과 대내적인 국민의 신뢰가 불균형한 느낌임. 전체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함. (20대, 학생, 남성)
-------------------------------	---

53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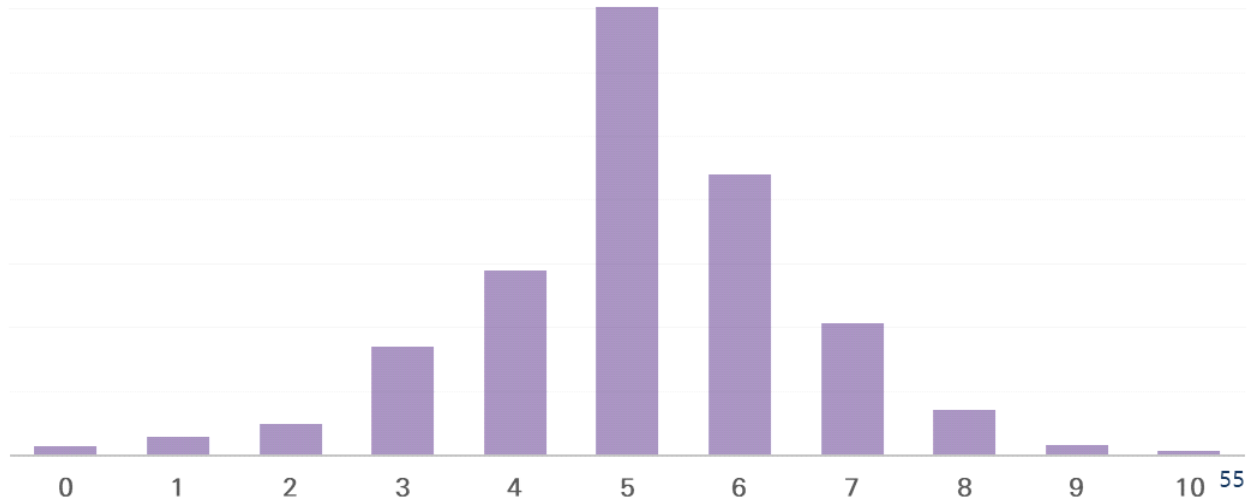
1.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2.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3. 시민의 목소리

07

01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 전년대비 0.7점 하락한 5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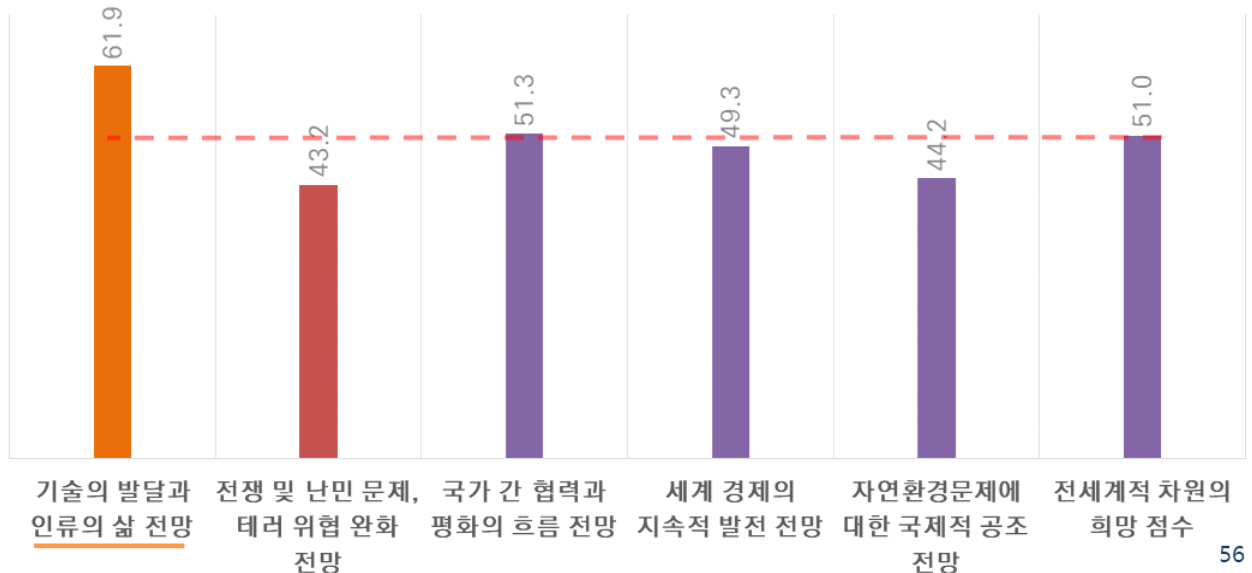
■ 응답자의 37.2%는 희망적, 개인적 차원의 희망점수(62.1점) 보다 11.1점 낮음



02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전쟁 및 난민 문제, 테러 위협 완화 전망이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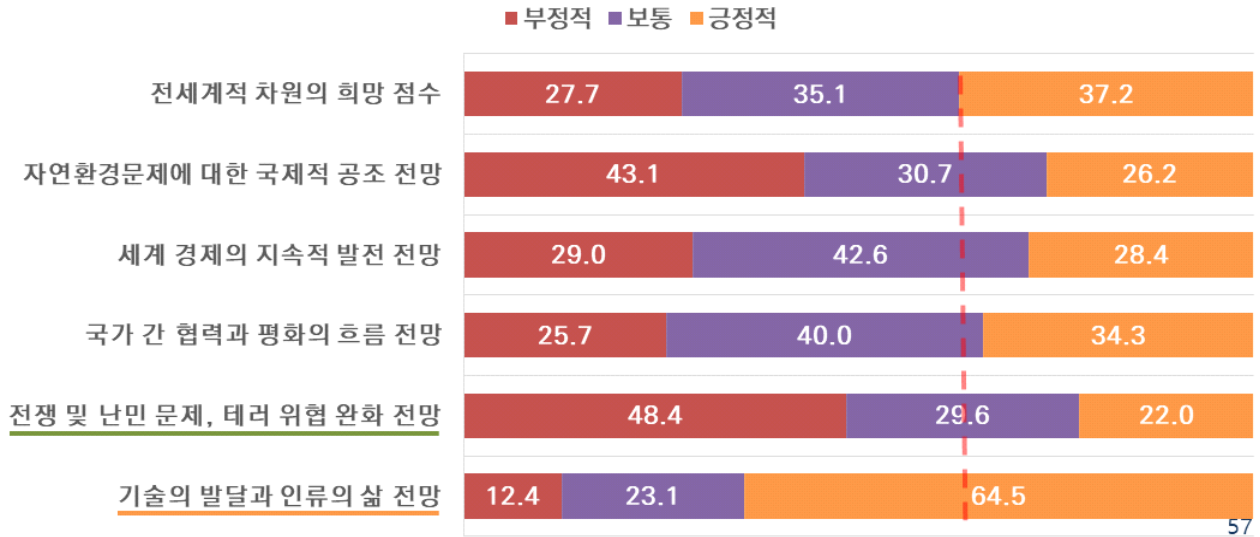
■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류의 삶이 나아질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



02 전세계적 차원의 희망: 항목별 비교

» 전쟁 및 난민 문제, 테러 위협 완화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48.4%

■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류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64.5%



03 시민의 목소리

전세계의 미래에 대한 희망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최근 '거북이 빨대 사진'을 보고, 종이와 스테인리스 활용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식의 전환에 대해 희망적임. 조금만 더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긍정적임. (30대, 무직-안식년, 여성)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문제, 노령화 문제임. 지구 온난화 문제, 전쟁과 테러, 경제 양극화도 심화할 것. 또한 4차산업혁명으로 거대 그룹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경향도 심화할 것. 무역전쟁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 안정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5년 후의 미래는 부정적임. (50대, 직업상담사, 남성)
전세계가 더 희망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변화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감시체계와 통제체계가 필요함. (30대, 무직-안식년, 여성) 의식, 가치관의 범세계적 변화와 전지구적 연대의식이 필요함. 경제적 이익만을 부각한 관점보다는 국가 간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 (50대, 직업상담사, 남성) 전지구적 차원의 신뢰 구축이 필요함. 한번 깨지면 다시 구축되지 어렵기 때문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유있는 시각이 필요함. (20대, 학생, 남성)

결론

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2. 향후 계획

0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 전반적인 인식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의 시대에서 시민은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낌
-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력에 따라 공정하게 성과가 배분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음. 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성별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함
- 사회적 갈등이 완화할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소득과 부의 격차와 불공정 경쟁 개선에 대한 전망도, 정부에 대한 신뢰도 낮음. 또한 갈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였음
- 많은 시민은 국가나 사회에서 희망을 찾기 보다는 자기 내부로 들어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거나 가까운 관계에서만 희망을 찾으려 하고 있음.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를 통해서 거시적인 희망을 느끼고 있음

0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 전반적인 인식

- 시민의 삶은 사회환경과 분리될 수 없음. 사회환경은 현실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삶의 질은 미래를 꿈꾸고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에도 영향을 주는 환류체계를 가지고 있음
- 시민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을 더 느끼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긍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필요함
- 이번 조사를 통해 시민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의 투명성과 국가에 대한 신뢰,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사회라는 것을 확인하였음
- 시민이 일상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함

61

0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 전반적인 인식

- 시민이 국가와 사회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음. 자신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포기하거나, 삶의 질을 포기할 정도로 과도한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 국가와 사회가 실질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면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는 것
- 긍정적인 것은 관계에 대해 높은 신뢰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
- 가까운 인적 관계망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시민을 위한 사회환경의 변화가 될 것

62

0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설계
-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정책제안 반영률 향상 방안 마련, 민원 평가체계 개편
-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 체계
 - 수렴 과정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제도 변화과정에 지속적 의견 반영
- 사회적 가치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상설) 공론장 개설
 - 공론장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모델 확립, 토론과 의견조율을 통한 갈등 관리
-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 시민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와 방법 제공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시민희망지수 조사 및 정책개발
 -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현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긍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시민의 희망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

63

01 정책 제언과 희망제작소의 향후 역할

» 희망제작소의 역할

-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
 - 희망드로잉26+ 워크숍 교육, 사회혁신가 네트워크
- 공동체를 강화하고, 다양한 주체와 연결하는 촉진자의 역할
 -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지역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시민과 공공의 연결자 역할
 - 소셜 리빙랩, 정책연구, 이슈페이퍼
-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구체화하고 제안할 수 있게 하는 지원자 역할
 - 온갖 문제 연구소, 모든 시민이 연구자 플랫폼, 시민연구허브
- 공공의 혁신을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
 - 혁신 공직자과정 운영, 목민관클럽 운영

64

02 향후 계획

» (단기) 연구팀 구성

- 희망 관련 연구자 간담회(철학, 심리학, 사회학, 통계학, 경제학 등)
- 연구팀 구성 및 정기 회의(전문가 및 대학원생)

» (단기) 외부 연계 및 비교 가능 조사에 대한 검토

- 국가승인통계 및 민간기관의 통계, 국제기구 통계 등을 통해 입체적 분석

» (단기) 지역희망지수 개발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희망지수 개발을 위한 공통 모듈과 특화 문항 연구

65

02 향후 계획

» (단기) 소규모 집단용 희망지수 Kit 개발

- 소규모 집단에서 소속 집단의 희망지수를 확인하고 차년도 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Kit 개발(참여형 희망지수 Kit)

» (단기) 설문지 개선

- 문항 타당성 추가 검토
- 추상적 질문의 구체화 및 중심화 경향에 대한 대안 검토
- 희망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텍스트 분석

» (단기) 심층 연구

- 지수화를 위한 기초분석, 인과관계 분석 등 추가 심층 분석 실시

66

02 향후 계획

» (장기) 세부 집단별 심층 연구

- 표본 확대를 통한 응답자 세부 특성별 희망지수 심층연구 수행

» (장기) 원자료 공개

- 조사 원자료 외부 공개,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모전 기획

» (장기) 해외 사례 조사 및 협업

- 해외와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장기) 시민 의견 수렴

- 참여형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67



시민희망지수의 의미와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김홍중 교수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전공은 이론과 문화입니다. 설문지를 통한 통계적 분석은 제 전공분야가 아닙니다. 다만, 몇 해 전부터 미래, 미래성, 꿈, 희망, 절망 등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수행해 왔고, 또 희망제작소의 희망지수 개발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어서 이 자리에 초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의 발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성격을 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년 전인 2016년 가을에 있었던 희망제작소의 포럼에 제출했던 토론문에서 저는 당시 수행되고 있던 이론적 탐구에 기초하여¹⁾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 명제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발전주의를 체험했던 사람들에게 미래는 자명한 시간성으로 이해되지만, 사실 미래라는 시간은 근대 이전에는 실체가 아니었고, 더구나 21세기 포스트-발전, 포스트-성장, 그리고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동반한 문명사적 변동의 시기에는 그 자명성이 상당부분 탈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는 물질이나 재화처럼, 행위자들의 개별적, 집합적 생산의 산물입니다. 미래를 재화로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두 번째 명제가 도출됩니다. 미래의 생산능력과 미래의 소유여부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미래를 둘러싼 경쟁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이를 ‘꿈-자본(dream-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해 오고 있습니다. 꿈은 경제적 자본이나 상징적 자본처럼, 미래를 만들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에서의 자본입니다. 시대적으로, 계급이나, 젠더, 혹은 지역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장악력, 미래의 생산력은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차이를 좁힐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미래가 풍부한 사회가 꼭 살기 좋은 사회인가요? 꿈이 약화되어도,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명제는 ‘희망은 낙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하여 이 정도로 마치고, 이번 2018년 시민희망지수에 대한 희망제작소

1) 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사회』 108.

의 연구결과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16년의 희망의 범주였던 개인과 사회라는 두 범주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 차원의 희망에 대한 탐구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의 이론적 논의에서 저는 꿈이 세 가지의 상이한 차원으로 구분되어 접근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 꿈인 私夢, 그가 속한 조직이나 집단(직장, 종교단체, 시민단체, 정당, 지역사회 수준....)에 대한 꿈인 共夢,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정치공동체나 민족공동체 혹은 세계에 관한 꿈인 公夢이 그것입니다²⁾. 이들 사이에는 상이한 질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꿈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인간 정체성의 주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³⁾. 시민희망지수에서 시민이란 누구입니까? 촛불시민입니까? 아니면 소비자입니까? 유권자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단독자입니까? 세계시민입니까? 이 모든 것입니다. 한 명의 인간은 개인이면서, 사회구성원이고, 국가의 일원이고 또 지구인입니다. 이번의 조사에서 시도된 이 희망의 다차원성은 이런 점에서, 희망의 탐구에서 매우 중요한 시도를 이룬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와 국가를 어떻게 구분했을까, 양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설문지를 구성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사실 내용을 살펴보니, 사회라는 말로는 국가내부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삶 전반을 가리킨다면, 국가라는 말로는 국가 간 관계와 대외적 차원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점에서 범주구분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의 구체적 결과들 중에서 제가 주목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질문과 커멘트를 시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개인적 희망, 사회적 희망, 국가적 희망, 세계 수준의 희망 중에서 뒤의 셋이 유사한 정도를 드러내는 반면, 개인적 희망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들이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인 듯이 보입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자율적 의사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투명성과 노력에 대한 성과를 낮게 보는 것은, 촛불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고된 정치적 효능감(efficacy)과 다

2) 김홍중. 2015. “꿈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 『경제와사회』 108. pp. 53-6.

3) 김홍중. 2018. “꿈의 사회학 서설”. 『꿈의 사회학』. 박명규, 김홍중 편. 다산출판사. pp. 42-6.

양한 방식의 민주적 행위능력에 대한 실감을 한 편으로 하는 동시에, 기본적으로 아직 한국 사회가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나 흥미로운 것은 노력에 대한 공정한 성과가 아니라 ‘투명성’의 문제인데, 투명성이라는 말로 응답자들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의 부패를 가리키는 것인지, 행위자의 의도와 다른 복잡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들은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욕구에 비추어 현실이 그렇지 못하며, 앞으로도 그 부분이 쉽게 개선되지 않으리라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재난이나 안전의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강화시켜나간다는 전망과 더불어 사회에 내재하는 갈등의 처리에 별다른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응답결과를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트라우마 이후 한국 사회가 이와 같은 재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희망이 강하지만, 계급, 이념, 젠더, 세대의 차이들에서 터져 나오는 여러 형태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 우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앞으로 여전히 갈등적이며,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관점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최근의 남북 평화체제의 실행과정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다소 반영되었고, 한류나 K-pop에 대한 인식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낙관의 전망은 없습니다. 이는 응답자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처한 조건 속에서 미래가 여전히 녹록치 않은 난관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본다는 인식의 결과로 보입니다. 세계의 차원에서는 기술발전에 의해 이루어질 삶의 향상에 대한 기대는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으나, 전쟁이나 난민 혹은 테러리즘의 문제를 어둡게 바라보는 관점이 강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사회, 세계의 미래는 상당히 객관적이며, 날카롭고,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동시에 개인의 삶에서는 더 많은 희망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를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특히 개인 삶의 영역에서도 경제상태가 좋아진다는 관점보다는 가족이나 지인, 즉 주변과의 교류관계가 더 나아지리라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인가요? 세상은 더 나빠질 것이지만, 나와 주변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특히 세상이 나빠질수록, 나는 내 주변과 가족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인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고민을 요합니다.

다. 바로 이런 질문과 연관해서, 희망과 전망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순수하게 이론적인 관점에서 나는 희망과 낙관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가령 크리스토프 래시는 자신의 저서 <진실하고 유일한 천국(The True and Only Heaven)>에서 서구의 진보 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미래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와 신학적 희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낙관주의 없는 희망(hope without optimism)”입니다⁴⁾. 하벨 또한 희망과 낙관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⁵⁾.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인가? 하벨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의 일차적 기원은, 간단히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왔다 (...) 초월적인 것(transcendental)의 경험이 없이는 희망이나 인간적 책임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⁶⁾. 희망이 일어나는 곳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나 좌절이나 실망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철학적인 이런 논의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희망지수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때 참고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생각은 희망일까요 아니면 전망일까요? 저는 전망과 희망의 가장 큰 차이는 합리성과 감정의 차이처럼 보입니다. 전망에는 합리성이 있고, 근거가 있고, 예단이 있습니다. 희망은 전망과 같이 가고 있지만,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가령, 제가 보기에 개인 수준의 미래에 대한 관점은 전망인 동시에 ‘희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회, 국가, 세계는 전망의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 시민들은 세상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개별적 삶에 더 많은 희망을 부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 Christopher Lasch. 1991. *The True and Only Heaven*. New York & London. W. W. Norton & Company. p. 392-3.

5) Havel, Vaclav. 1991. *Disturbing the Peace*. New York. Vintage. p. 181. 인용. Deneen, Patrcik, J. 1999. "The Politics of Hope and Optimism. Rorty, Havel, and the Democratic Faith of John Dewey". *Social Research* 66(2). p. 581.

6) Havel, Vaclav. 1997. *The Art of the Impossible*. New York. Fromm International. p. 238-9.

2018. 12. 12

희망

안산시민 희망지수

2018년 안산시민의 희망을 엿보다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경기도
안산시

희망

경기도 중서부에 있는 시. 경기도 반월출장소가 1986년에 시로 승격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주거지역과 공업단지가 뚜렷하게 분리
국도와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지하철 4호선
관광지로 대부도가 유명

인구 : 716,785명 / 행정구역 : 2개 구 25개 동 / 재정규모 : 2조 3천억원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안산시민 희망인식 조사 내용

차원	조사내용
I 현재 만족도 및 기본 인식	• 현재 삶 만족도 • 사회활동 참여 의향 • 항목별 만족도(건강, 목표, 관계, 시간) • 인생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소
II 개인적 차원의 희망	• 건강 유지 전망, 경제 상태 전망 •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 가족, 지인들과의 교류 전망 •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 사용 전망 • 향후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III 사회적 차원의 희망	• 사회 안전과 질서 전망 • 상호존중과 배려 분위기 전망 • 빈부격차와 불평등 개선 방향 전망 • 일과 여가가 균형 잡힌 사회 전망 • 환경문제 개선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희망 점수
IV 국가적 차원의 희망	• 남북관계 전망, 역동적 발전 전망 • 국가적 신뢰와 이미지 전망 •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전망 • 향후 우리나라의 희망 점수

V 안산 지역 차원의 희망

- 사회 안전과 질서 전망
- 상호존중과 배려 분위기 전망
- 빈부격차와 불평등 개선 방향 전망
- 일과 여가가 균형 잡힌 사회 전망
- 환경문제 개선 전망
- 세월호 참사 경험의 사회 영향 전망
- 향후 우리 사회의 희망 점수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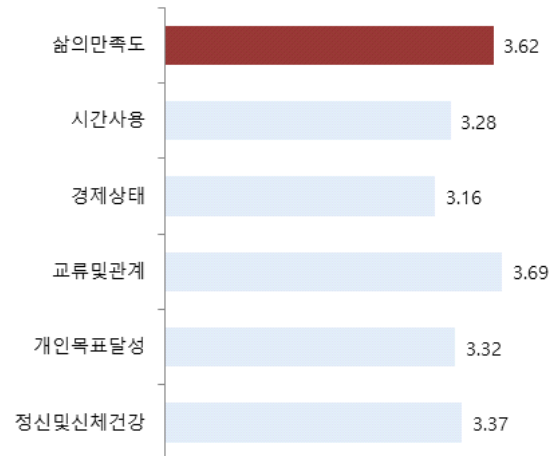
조사 개요

구분	내 용
조사대상	15세이상 안산시민
조사방법	오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
표본크기	총 432 사례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pm 4.73\%p$
조사기간	2018년 10월
수행기관	사단법인 더좋은공동체

전체	전체 응답자	432(명)	100.0(%)
성별	남성	70	16.2
	여성	354	81.9
	무응답	8	1.9
연령별	만15~19세	52	12.0
	20대	43	10.0
	30대	61	14.1
	40대	155	35.8
	50대	91	21.0
	60대	26	6.0
	무응답	4	0.9
지역별	단원구	273	63.2
	상록구	156	36.1
	무응답	3	0.7
정치적 이념 성향	진보	181	41.9
	중도	187	43.3
	보수	49	11.3
	무응답	15	3.4

귀하께서는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전반적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종합평가		점수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만족	불만족	만족	
전체	1.6	8.2	30.3	45.8	14.1	9.9	59.9	3.62
만15-19세	2.0	6.0	16.0	46.0	30.0	8.0	76.0	3.96
만20-29세	2.4	24.4	17.1	53.7	2.4	26.8	56.1	3.29
만30-39세	0.0	10.0	36.7	36.7	16.7	10.0	53.3	3.60
만40-49세	1.3	5.8	33.8	49.4	9.7	7.1	59.1	3.60
만50-59세	2.2	4.4	31.9	45.1	16.5	6.6	61.5	3.69
만60이상세	3.8	11.5	38.5	34.6	11.5	15.4	46.2	3.38
단원구	2.4	8.1	29.4	46.0	14.1	10.5	60.1	3.61
상록구	0.6	8.8	32.2	45.0	13.5	9.4	58.5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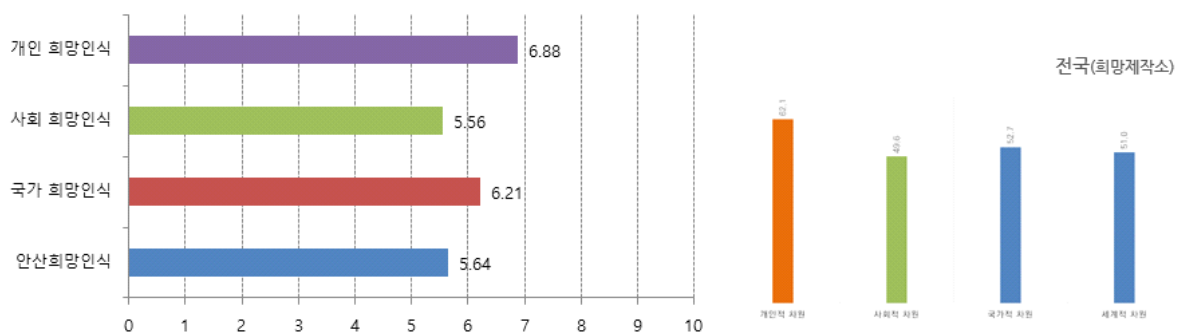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향후 본인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으로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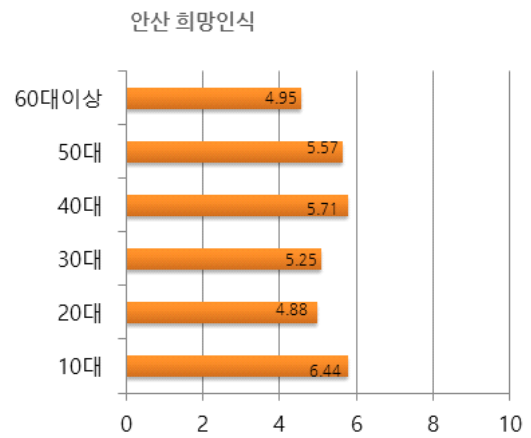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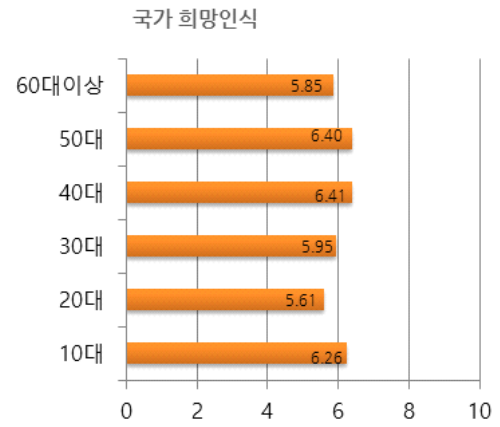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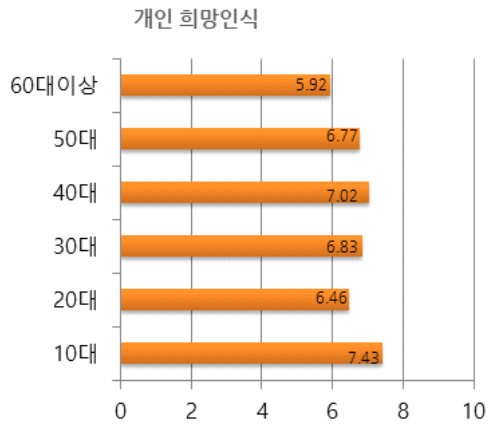
귀하께서는 향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께서는 향후 안산이 얼마나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개인희망지수 : 6.88 - 국가희망지수 : 6.21
- 사회희망지수 : 5.56 - 안산희망지수 : 5.64





개인 차원의 희망인식 질문

		현재 삶 만족도	개인시간사용	개인 건강	개인 경제
평균		3.62	3.26	3.45	3.45
남/여			3.21 / 3.31	3.49 / 3.4	3.49 / 3.4
연령	10대	3.96	3.75	4.04	3.98
	20대	3.29	3.26	3.19	3.47
	30대	3.60	3.03	3.43	3.50
	40대	3.60	3.19	3.29	3.40
	50대	3.69	3.40	3.39	3.24
	60대	3.38	3.08	3.32	2.77

사회적/안산 차원의 질문

		사회적 차원		안산 차원	
		사회안전질서	빈부격차	사회안전질서	빈부격차
평균		3.2	2.76	3.24	2.95
남/여		3.23 / 3.17	2.77 / 2.75	3.26 / 3.23	2.97 / 2.93
연령	10대	3.27	3.14	3.53	3.22
	20대	3	2.56	2.67	2.53
	30대	2.93	2.6	3.02	2.85
	40대	3.36	2.86	3.27	2.95
	50대	3.15	2.59	3.23	2.92
	60대	2.77	2.46	3.12	2.93

국가 차원의 질문

		남북관계	국가 이미지
평균		3.85	3.59
남/여		3.97 / 3.74	3.71 / 3.47
연령	10대	3.75	3.47
	20대	3.74	3.21
	30대	3.82	3.37
	40대	3.92	3.63
	50대	3.65	3.5
	60대	3.4	3.38

세월호 관련 질문

귀하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경험이 안산 시민의 안전과 사회질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평균		3.23
남/여		3.35 / 3.11
공동체 활동 참여(O/X)		3.26 / 3.03
연령	10대	3.37
	20대	3.07
	30대	3.07
	40대	3.3
	50대	3.02
	60대	2.33

단원구 : 3.15

상록구 : 3.19

고잔동(표본46) : 2.93

선부동(표본21) : 3.0

와 동(표본15) : 3.0

초지동(표본76) : 3.17

호수동(표본16) : 3.37

신길동(표본34) : 2.97

일 동(표본37) : 3.51

본오동(표본17) : 3.05

사 1.2동(표본36) :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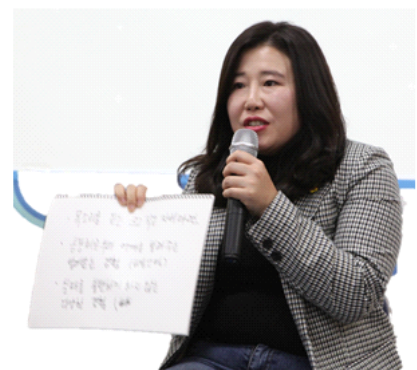
결과 공유를 위한 ‘안산희망지수 토크콘서트’



30년전 도시 개발과 공업단지유입된 노년층
자녀에 대한 지원과 노후에 대한 부담, 불안감으로 희망지수 낮아



희망지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현재 생각하는 것
희망은 결국 미래를 현재화 하는 수단



세월호는 사고 지역은 아니고, 피해 당사자가 많은 지역.
안전에 대한 민감성, 인권/생명에 대한 감수성 이야기하는 도시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간접 피해자에 대한 배려/함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희망지수'UP'

- 세대별, 성별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계기
- 지역을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지역 만들기의 방향을 고민
-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희망지수'UP'

2018년 안산의 경험

시민이 만든 희망지수 민간(지역 시민사회단체) 영역에서 모니터링

시민을 만나고 시민의 인식을 읽어내는 좋은 콘텐츠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더 효과적, 정책의 근거 마련

: 안산시 예산 수립 협의 2019년 협력 진행 예정

지역형 질문 개발이 필요

: 지역은 희망지수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부족, 희망제작소의 협력/지원과 소통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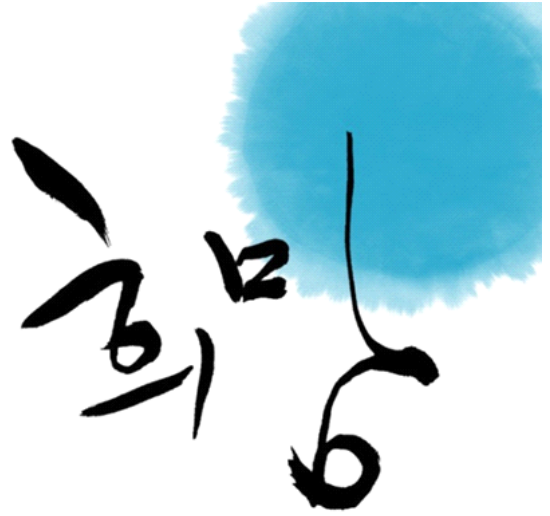
희망지수는 연속성이 필요지만 지역의 한계 극복이 과제

: 열악한 민간영역(단체) / 행정은 연속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취약

희망지수 해설과 가이드?

: 희망지수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조사 및 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국과 지역 데이터 비교/연동성을 높이는 노력 필요

2018. 12. 12



감사합니다.



II. 토론문



[토론문 1]

인천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조승헌 연구위원

희망이 없다는 사회와 시대에 희망이 있다는 자 누구이며 왜인가?

이처럼 희망이 넘친다는 사회와 시대, 절망에 빠진 자 누구이며 왜인가?

이 자리 토론을 제의받고, 평소 상식 수준에서 희망을 생각해 오던 저에게 떠오른 둘이되 하나인 궁금증입니다. 삶의 여건과 위치가 객관적, 과학적, 논리적, 통계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어찌할까요? 세상 돌아가는 모양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할지? 두 가지 길이 생각납니다. 희망인프라와 역량구축으로 사회를 친희망적으로 개선하여 사회 구성원의 희망을 제고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정책적 접근방식이죠. 두 번째. 세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세상이 바뀔들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으로 단정하고 세상살이를 당사자의 주관적 해석과 삶의 지혜에 오롯이 맡기는 것이지요. 상대적 박탈감과 ‘희망 고문’에 휘둘리지 않는 독심이 있어야 하겠지요.

조사 결과를 보니 한국사회의 대다수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지금 두 번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만족도는 최저이고, 관계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소득과 부의 격차 해소 전망(부정적 69.1, 긍정적 11.8), 불공정개선 전망(부정적 52.8, 긍정적 19.7)), 합리적이고 전략적 적응을 한 결과가 관계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겠지요. 가족, 친구 등 탈이해관계 중심으로 행동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대부분 첫 번째로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가치지향성이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우선 이해관계와 물질가치를 삶과 존재감의 목표와 평가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높지요. 돈, 지위, 명예, 브랜드 같은 물질가치형 요소들은 속성상 경쟁과 비교가 심하죠. 그러니 물질가치중심 사회풍조와 가치관에 쏠리는 무게중심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희망이든 행복이든 크게 좋아질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는지요.

새삼스럽지 않지만, 이런 냉소는 이제 접고 예외적인 경우를 주목했으면 합니다. 전체 사회를

통으로 보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희망시대에 절망하는 자를 우선 보듬고, 절망 속에서 희망하는 자의 지혜와 요령을 찾아 다듬어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나 홀로 좋아진들 지속 가능하지 않을 테니 이웃, 주변을 함께 바꾸어야겠습니다. 조사, 공부, 공리를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희망제작소에서 제안한 구체적인 여러 계획에 공감합니다. 연례적인 시민희망지수 작업이 희망의 진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이제 노력의 한 편을 대응과 행동에 두는 과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희망이라는 추상성이 세부적인 분야와 단위에서 연관을 맺고 변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안산지역의 희망지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안산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으로 나아가는 데 함께 해야겠지요.

결과 해석 관련, 남성보다 여성이 자신의 성으로서 삶이 더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것에 대한 저의 견해입니다. 제가 행복 공부를 통해 이해한 바로는 선천적으로(유전적) 여성이 남성보다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지만, 사회여건이나 경험은 여성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하여, 체감하는 삶의 부정성은 남성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미투 같은 여성의 삶에 긍정적인 현상이 발로됨에 따라 그간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듯합니다. 절대적인 여건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체제와 운용은 남성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기울어져 있다는 주장에 많은 분이 공감하지 않을까 합니다.

끝으로, 처음에 시민희망지수 작업을 하신 분의 생각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연구 초기의 의도를 고려한다면 희망은 "(불만족스러운 현실, 또는 현재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실천적 힘"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런 정의를 따른다면, 사실상 희망지수의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와 미래 모두를 특히 사회적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불만족스러운 현실이 이를 바꿔보려는 실천적 의지와 기대로 이어지지 못하는지, 그 연결고리를 연구에서 찾는 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변화를 이끌 세력에 대한 질문을 통해 변화의 전략과 대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2]

한겨레21 김현대 선임기자

1. 삶을 지배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

- 현재 삶에서 경제상태가 가장 불만족
- 인생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것은 부모 경제력과 인맥
- 개인 차원 희망에서 취업 및 사업 기회 전망 가장 부정적
-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활력 전망 부정적
- 불평등 전망에서도 부의 격차 개선과 불공정 경쟁 개선 가장 부정적
- 경제 문제에 대한 부정적 자각과 불안감이 우리 삶의 현재와 미래 지배

2. 긍정적인 공동체 인식

- 가족 지인들과의 교류에 만족
- 가족 및 친지들과의 관계 전망도 긍정적
- 사회(공동체)의 건강성? 소확행?

3 사회적 참여 증가는 뚜렷한 긍정 신호

- 후원 11.7%p 외에 봉사, 온라인 참여, 지역공동체 활동 등 뚜렷이 증가
- 사회의 건강성 강화

4. 적극적 민주화 요구 표출

- '자율적 의사결정'엔 긍정적, '사회구성원의 의견반영'엔 부정적인 상반된 응답
- 억압 없는 소극적 민주화 넘어 다양한 생활요구 반영하는 적극적 민주화 요구

5. 사회갈등에 대한 불안감 매우 높아

- 갈등사회 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낮은 정부신뢰로 귀결
- 불평등과 투명성에 대한 전망도 여전히 부정적
-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의 사회적 소통장치 필요성 제기

7. 남성보다 여성의 삶이 더 희망적!

- 성차별 개선 전망도 긍정적
- 여성과 남성의 긍정응답률 차이 뚜렷 (49.5% 대 36.4%), 왜?

8. 기타

- 신체적조건(7.0%)이 사회제도(6.1%)보다 인생에 더 큰 영향
외모지상주의의 단면?
- 사회적자본 전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기대

[토론문 3]

#도시거주 #30대 #여성 #비혼 #무주택 #1인가구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백희원 활동가

관점

바야흐로 해시태그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키워드들을 덧붙이며 다면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2018 시민희망지수 참여자들에 대한 다양한 분류를 보며 이런 해시태그의 시대에 걸맞는 연구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에 임하기 전에 저의 키워드들을 명확히 해야 아래 제가 적을 해석들이 의미있는 입장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 없이 도시에 사는 30대 초반의 비혼 여성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은 낮는데 물가와 주거비는 높아 나가는 돈이 많으며 삶이 불안정한 만큼 금융권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생활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인가구이자 무주택자이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낮은 희망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에 속하겠네요.

하지만 도시에 사는 30대 여성이란 꿈이 많기 마련입니다. 저는 여느 젊은 여성들만큼 사회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많고 온 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 일을 벌이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제가 줄곧 다뤄온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올 한 해 저는 1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 “만약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향후 5년 간 어떻게 살고 싶은 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가족구성권을 주제로 내가 원하는 가족공동체는 어떤 모양인지 주로 20대 여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마주했던 이들의 얼굴을 찾고자 노력하며 2018 시민희망지수의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저의 눈에 유독 들어온 발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젠더

성별에 따른 사회적 희망을 살피는 항목이 새로 추가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변화였지만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젠더 관점에서 전 항목을 재해석 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연구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신기합니다. 제가 실감하는 삶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과 관련해 더욱 첨예

한 문제인 안전, 가사노동, 직장에서의 차별대우 등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삶에 대한 희망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동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 변화는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에 다른 영역들이 응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대를 걸어도 될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파심에 덧붙여보자면 이것을 곧 현재 삶의 조건이나 처지가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관계

이번 시민희망지수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키워드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가족 및 지인들 간의 교류 및 관계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고, 앞으로 관계에 대한 전망도 높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를 개인들이 관계를 통해 삶이 개선될 여지가 높아지리라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들 간의 의존성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이를 꼭 좋게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직적 관계인지, 수평적 관계인지에 따라 상호의존적 관계가 아닌 종속적 관계가 강화될 수 있고 이는 곧 위력에 의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고질적인 지연, 학연, 혈연 관계에 해당하는 의미의 응답이라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존성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실제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완화 전망 인식은 낮게 나타났습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가 추가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금융통자, 건강조력자, 스트레스 해소자와 같은 관계는 꽤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최후의 사적인 안전망으로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사회 생활의 측면에서 강한 연결 외에 약한 연결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세 명이라면 대개의 경우 자금융통과 건강조력에 있어 최우선순위로 가족을 꼽았으리라 추측되는데, 이는 어쩌면 한국의 가족이기주의를 반영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로컬’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커뮤니티 서비스 시장을 통해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취미 및 의제 중심 커뮤니티, 직군별 모임 등도 일종의 사회참여 및 사회적 자본으로 측정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3. 불평등의 대물림

올해 시민희망지수 연구결과에서도 불평등의 대물림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 교육수준, 주택소유여부, 1인가구 여부, 사회적 자본 중 교육수준과 주택소유여부는 한국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세습의 메커니즘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연상시킵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 소득과 부의 격차 개선 전망이 낮아진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관련해서 지난 10월 12일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된 “고령층 내 큰 자산 격차, 자손들에게 이전돼 더 심해져”라는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나이별로 분석한 연구자료를 시각화 한 기사였는데, 여러 세대 중 고령층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이들의 자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20대 초반의 순자산소득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성공한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 사이에서 불평등 격차가 심화하면서 대물림 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불평등의 해소가 선결과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핵심과제라고는 생각합니다. 태어나며 주어진 삶의 조건이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다른 희망은 기만에 불과한 것이 될테니까요. 2018년의 트렌드였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희망 없는 세대의 행복이 아닐까요.

제언

개인 희망지수는 상승했는데,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거시적 희망지수는 하락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추측일 뿐입니다만, 이 둘 사이의 불일치는 개인이 사회 공동의 문제해결보다는 자신의 노력 여하에 더 큰 기대를 걸어본다는 것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런 인식 하에 관계를 통해 개선을 도모할 때 이해 기반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선택할지, 이질적인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선택할지에 따라 과정도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관계에 기대를 거는 응답자들이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지향하는지는 연구결과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희망제작소에서 지수 연구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집단들 간에 차이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체계적으로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10대, 20대를 대상으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자립에 대한 조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향후 계획에 있는 세부 집단별 희망지수 심층연구가 반가웠습니다. 취합된 연구결과를 읽는 내내 장애 여부, 성 지향성, 인종과 이주 여부에 따른 소수자들의 희망은 과연 이 위에 나란히 겹쳐질지 궁금했습니다. 표본 확대를 통해 소수자의 목소리가 섬세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연구자인 사회를 지향하는 희망제작소인 만큼 ‘사회참여’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정 이슈의 당사자로서, 발화자로서 조직 기반이 아닌 프로젝트 기반의 사회참여를 하는 독립활동가 및 연구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더 나은미래에서 현장 활동가 100여 명을 인터뷰해 2019년 제3섹터 키워드 10가지를 꼽아 발표한 결과에 ‘시민력’, ‘굿 굿즈’, ‘소셜미션과 비즈니스의 밸런스’, ‘사이드 허슬러’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이런 경향을 반영해 사회참여에 해당하는 활동도 새롭게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가며 더하는 말

올 한 해 제가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떤 삶을 살지 물었을 때 누군가는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했고, 누군가는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사서 가족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지역에서든 해외에서도 살아보고 싶다고 했고요. 희망을 양화할 수 있다면, 적어도 희망만큼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마음껏 주어지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바람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합하며 더 나은 사회를 추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토론문 4]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들어가며

폐지 수집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희망지수 척도를 대입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가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늦게 도입되어 공적연금체계 혜택을 다수가 받지 못합니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로 전체 노인인구의 7% 공급입니다. 가족에게 부양을 받기 어려운 사회문화입니다. 모든 면에서 의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노인.

이 노인들 조사는 희망지수 조사 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개인적 차원 10문항, 사회적 차원 3문항으로 축소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인들이 고령이다 보니 많은 질문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30명을 모아서 진행하다보니 일대일 면접에서 보장된 정밀성을 떨어집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 중에는 생계형이 아닌, 용돈 벌이형 노인도 있었습니다.

1. 성별

남	여
16명	14명

2. 연령

70세미만	71~75세	76~80세	81세이상
3명	4명	14명	9명

3. 설문 결과

□개인적 차원의 희망

3-1. 향후 5년간 나의 건강 상태가 괜찮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8명	6명	2명	14명

- * 희망지수 조사 긍정적 대답 47%에 비해, 73% 어르신이 건강상태에 낙관적인 희망을 보였다. 실제로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는 악화된다. 악화되는 건 받아들여도 병치레를 통한 자식세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희망이 반영되었다.

3-2. 향후 5년 후 나는 원하는 만큼 취업 또는 사업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명	3명	7명	5명	4명	3명	7명

- * 희망지수 조사 긍정적 35.4%에 비해 어르신들은 46%가 기회가 많다고 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확대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3-3. 향후 5년간 나는 가족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명	2명	2명	7명	3명	15명

- * 희망지수 조사 긍정적 71.1%. 어르신 83%가 가족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좋은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 또는 연락 두절을 외부에 노출되기 꺼리는 방어기제가 작동한 것 같다.

3-4. 향후 5년간 나는 친구와 지인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2명	2명	3명	6명	4명	13명

* 희망지수 조사 긍정이 65.8%. 어르신의 76.6%가 가족, 친구 지인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있다고 답함.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각지대 전수 조사,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통한 말벗, 병행 동행, 일상 도움의 서비스가 많아진 결과로 보여짐.

3-5. 향후 5년후 나의 경제 상태가 괜찮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3명	5명		7명	5명	2명	8명

* 희망지수 조사 49.5%가 긍정. 어르신 50%만이 긍정. 희망지수 조사와 어르신 조사간에 차이가 없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을 두 명 중 한 명이 하고 있다고 보여짐. 노인빈곤율 49.6%가 실제로 느껴진다.

3-6. 향후 5년 후 나의 일, 휴식, 수면 여가와 같이 시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2명	2명	2명	7명	8명	1명	8명

* 희망지수 조사 48.3% 긍정. 어르신 조사 56.6%가 긍정으로 대답. 경제적인 빈곤에 대한 우려로 5년 후 나의 경제상태와 비슷한 수치로 나옴.

3-7. 향후 5년간 나는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로 인해 나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2명	2명	10명	2명	9명	2명	3명

* 희망지수 조사 43.3%. 어르신 조사 46.6%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함.

3-8. 향후 5년간 나는 배우자 (연인)과 충분히 교류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2명	6명	3명	5명	5명	2명	7명

* 희망지수 조사 58.1% 긍정. 어르신 조사 46.6%로 표본조사 수치보다 비관적으로 나옴. 핵가족시대. 신체, 정신이 약해질 때 요양원 입소. 배우자 사별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

3-9. 향후 5년 후 본인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희망적 혹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에 응답해 주세요.

매우 절망적					보통	매우 희망적				
0	1	2	3	4	5	6	7	8	9	10
		2명	1명	3명	9명	3명	5명	1명	2명	4명

* 희망지수 조사 63.5% 희망적. 어르신 조사 50%가 희망적이라고 답함. 경제적 불안, 노화로 인한 질병에 대한 불안, 사회문화의 불안이 작용했을 것 같다.

3-10. 4점 이하로 대답한 경우 본인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할 것을 신뢰함(전부 희망적인 부분에 만점을 줌)
- 하는 것마다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실망이 크다
- 모른다
- 나이가 많아서

□ 사회적 차원의 희망

3-11. 향후 5년 후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 질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2명	2명	5명	7명	7명	1명	6명

* 희망지수 조사 30.8%가 긍정으로 답함. 어르신 조사 46.6%가 투명해질 거라고 대답. 투명해 질 거라는 예상보다는 투명해져야 한다는 소망이 표출된 것 같다.

3-12. 향후 5년 후 우리사회가 얼마나 희망적 또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점에서 10점 사이에 응답해 주세요.

매우 절망적					보통	매우 희망적				
0	1	2	3	4	5	6	7	8	9	10
1	8명		2명	1명	6명	2명	1명	2명	3명	5명

* 희망지수 조사 39.9%가 희망적. 어르신 조사 43.3%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희망적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인 노후에 소득과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3-13. 4점 이하로 응답한 경우 희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노후 소득이 없어서
- 경제가 너무 어렵다.
- 모른다.

□ 나오며

“꿈 없어. 병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지내다 자다가 죽는 거지.” 어르신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99% 노인이 이렇게 대답한다. 먹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다고 하시며 “슬슬 정리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아이들도 아니고.”라며 살짝 웃는다.

죽음을 가까이 둔 사람들이 말하는 정리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건강하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렇게 정리할 것이다.

“나이로 인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 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고령자는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 의무가 없다. 고용보험법에는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다가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노인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로수당, 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주휴수당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저녁이 있는 삶인 주 52시간 노동도 적용받지 않는다. 주 70시간 일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 삶을 정리하는 마당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상 예외규정을 철폐하라. 연령에 의한 차별을 중지하라.”

노후에 경제적 불안은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에서 차별에 의한 소득 불평등이 가져다 준다. 노년기 정리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내가 누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자식 세대에서는 누렸으면 하는 것. 이런 의미에서 노년세대의 희망을 몇 가지 추가한다.

첫째, 죽음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 교과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 주로 병원 입원실이나 영안실에서 또는 장례식장, 교회, 또는 성당이나 사찰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져 왔다. 죽음은 더 이상 초월적, 신비적 사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대처하는 방법들, 죽음에 대한 태도는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웰다잉 이름으로 민간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방법도 엔딩노트 쓰기, 입관체험,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에 국한되어 있다. 죽음 교육의 교과목화는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희망이다.

그둘째, 안락사법 제정.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존엄사법 연명의료결정법은 당사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노년에 들어서면 상식처럼 하는 말이 있다.

“벽에 뚫힐 할 때까지 살고 싶진 않아. 품위를 지키고 죽고 싶다.”

누구나의 꿈이지만, 모두가 이를 수 없는 현실. 모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적극적 존엄사법이 필요하다. 노년기 정리가 우울하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고통이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나 후손에게 의미 있는 정리는 희망이어야 한다.

2018 시민희망인식 컨퍼런스 자료집

발 행 인 정 지 강

편 집 희망제작소 정책기획팀

연구책임 손 정 혁

발 행 일 2018년 12월 12일

발 행 처 희망제작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T. 02.3210.0909 / F. 02.3210.0126

www.makehope.org

※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2018
시민참여단기4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성산동 114-14)
T 02-3210-0909 F 02-3210-0126 W www.makehope.org